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EFSET

—
EF 표준 영어 시험
5 페이지 참조



목차

- 03 개요
- 05 EFSET : 언어능력 평가의 혁신
- 07 EF EPI 2015 순위
- 09 지역 및 국가별 프로필
- 11 유럽
- 25 아시아
- 35 라틴 아메리카
- 45 중동 및 북아프리카
- 53 영어, 경제, 그리고 삶의 질
- 55 영어와 혁신
- 57 영어 그리고 연결성
- 60 결론
- 61 부록 A: EF EPI에 관하여
- 63 부록 B: EF EPI 국가별 점수
- 65 부록 C: CEFR 등급별 영어 사용 수준
- 66 부록 D: 인용자료

개요

2015년 현재, 영어는 제1의 세계 공용어로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 모든 교육계에서 영어는 학생들이 배워야 하는 기본적인 기술이라는 인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논쟁이 일어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공교육에서는 어떤 영어를 가르쳐야 하는가, 어떻게 영어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어느 정도의 영어 교육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집니다. 성인들은 보통 시간과 비용 투자가 신중하게 이루어지는 장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영어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 학습합니다.

오늘날 영어의 중요성은 다른 외국어와는 견주기 어렵습니다. 선진국에서는 교육계 종사자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영어로 충분한가', 만일 충분하지 않다면 교육과정에서 다른 모국어와 외국어를 위한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입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영어는 개발 목표, 서비스 산업의 성장, 다른 나라와의 활발한 교류 등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각 국가들은 그들의 독특한 역사, 언어의 양상, 경제적 협력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각자의 관점으로 이러한 문제들에 접근합니다.

영어가 자국 문화를 위협한다는 생각보다는, 발전을 위한 촉매제가 된다는 인식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경을 넘어 사람들을 서로 연결하고, 정보를 확산하고, 교류를 가능케 하는 영어의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 중심 교육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부유한 국가와 가난한 국가에 상관없이, 상당수의 나라에서 영어가 실질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먼 방식으로 교육되고 있습니다. 모든 영어 교사가 영어를 의사소통을 위한 도구로서 교육하지 않는 한, 국가와 개인 모두 세계 공용어의 혜택을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EF 영어 능력 지수(EF EPI) 제5판에서는 2014년에 온라인 영어 시험에 응시한 910,000명이 넘는 성인의 시험 결과에 기반하여 70개국과 지역의 순위를 매겼습니다. 제5판에서도 지난 8년간의 영어 능력 발전 정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제5판에서도 여전히 '지역'이 영어 능력을 평가하는 가장 큰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이웃국가' 효과는 유럽, 중동,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성인들의 영어 능력이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는 않지만, 이번 제5판에서는 지난 통계들과 비교하여 발전, 정체, 하락 등의 추세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 세계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 평균은 지난 해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국가, 지역, 연령대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양상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국가들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는 없었으며, 몇몇 국가는 지수가 하락했습니다.

- 영어 능력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와 낮은 국가 사이의 편차는 더욱 커졌습니다. 최상위인 스웨덴과 최하위인 리비아는 33점의 차이가 납니다.

- 전 세계적으로, 영어 능력 지수는 18-20세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30세 미만 성인의 연령별 지수 차이는 매우 근소하게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로는 세대별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에 매우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 조사가 이루어진 거의 모든 지역과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우수한 영어 실력을 보였습니다. 성별에 따른 격차는 특히 동유럽,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가장 컸고, 영어 능력 지수가 최상위권인 북유럽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 유럽은 여전히 영어 능력 지수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영어 능력 우수 국가는 유럽에 속합니다. 북유럽과 중부유럽이 특히 더 뛰어나며 그 실력은 지난 5년간 더욱 발전해왔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국가 중 특이하게도 영어 능력이 미흡합니다.

- 아시아는 영어 능력 지수의 다양한 등급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3개국은 '우수', 나머지 몇 개국은 '미흡/부족'입니다. 아시아는 조사가 진행된 곳 중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양상은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 라틴 아메리카는 여전히 영어 능력이 미흡한 지역이지만 평균 영어 능력은 높아졌습니다. 올해 최초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영어 능력 지수 '부족'을 기록한 국가가 3개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MENA)은 영어 능력 지수가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성인의 영어 능력이 후퇴하고 있는 유일한 지역입니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40세 이상의 성인이 가장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독특한 결과가 관찰됩니다.

- 매년 순위는 변동되지만, 영어 능력과 소득, 인터넷 보급률, 과학 연구, 그리고 기타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변함없이 뚜렷한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언어능력 평가의 혁신

2011년 첫 선을 보인 이래로 EF EPI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높아짐에 따라, 우리는 개인을 비롯하여 기업의 인사교육 책임자와 정책 입안자들이 영어 능력을 효과적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 저비용의, 편리하고, 신뢰할 만한 방법을 찾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Cambridge English FCE, TOEFL, TOEIC, IELTS 등과 같은 기존의 표준화된 영어 시험은 수준이 매우 높지만 응시료가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Cambridge English FCE, TOEFL, TOEIC, IELTS 등의 시험을 치르지만, 이들 응시자는 20억 명에 이르는 전체 영어 학습자의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개인 영어 학습자 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정부 같은 기관들도 믿을 만한 표준 영어 시험을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EF는 EF 표준 영어 시험(EF Standard English Test: EFSET)을 개발했습니다. 무료로 제공되는 EFSET은 다른 표준 시험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발되었고, EF의 연구, 분석 근거를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출제자들이 개발한 평가 문항은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토를 거쳤고, 여러 가지 언어 학습 환경의 다양한 학습자 그룹을 대상으로 검증을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계량 심리학자들과 시험 개발자들이 시험 자료를 분석하고, 실제 EFSET에 반영하기 위한 교정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모든 학습자들이 양질의 영어 시험을 이용할 수 있도록, EFSET은 온라인(www.efset.org)에서 무료로 제공됩니다. EFSET 응시자 성적은 앞으로 EF EPI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EF EPI는 성인 영어 능력 평가의 국제적 기준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EF STANDARD ENGLISH TEST

EF EPI 통계 참여방법

EFSET.ORG 에서 무료로 진행되는 EFSET에 응시하세요.



EF EPI 2015 순위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우수

01 스웨덴	70.94
02 네덜란드	70.58
03 덴마크	70.05
04 노르웨이	67.83
05 핀란드	65.32
06 슬로베니아	64.97
07 에스토니아	63.73
08 룩셈부르크	63.45
09 폴란드	62.95

양호

10 오스트리아	61.97
11 독일	61.83
12 싱가포르	61.08
13 포르투갈	60.61
14 말레이시아	60.30
15 아르헨티나	60.26
16 루마니아	59.69
17 벨기에	59.13
18 체코 공화국	59.01
19 스위스	58.43
20 인도	58.21
21 헝가리	57.90

보통

22 라트비아	57.16
23 스페인	56.80
24 도미니카 공화국	56.71
25 슬로바키아	56.34
26 리투아니아	55.08
27 대한민국	54.52
28 이탈리아	54.02
29 베트남	53.81
30 일본	53.57
31 타이완	53.18
32 인도네시아	52.91
33 홍콩	52.70
34 우크라이나	52.61



미흡

35 페루	52.46
36 칠레	51.88
37 프랑스	51.84
38 에콰도르	51.67
39 러시아	51.59
40 멕시코	51.34
41 브라질	51.05
42 아랍 에미리트	50.87
43 코스타리카	50.53
44 우루과이	50.25
45 파키스탄	49.96
46 과테말라	49.67
47 중국	49.41
48 파나마	48.77

부족

49 스리랑카	47.89
50 터키	47.62
51 예멘	47.60
52 모로코	47.40
53 요르단	47.33
54 카자흐스탄	47.04
55 이집트	46.73
56 이란	46.59
57 콜롬비아	46.54
58 오만	46.34
59 베네수엘라	46.14
60 아제르바이잔	46.12

61 엘살바도르	45.52
62 태국	45.35
63 카타르	43.72
64 몽골	43.64
65 쿠웨이트	42.65
66 이라크	40.69
67 알제리	40.34
68 사우디아라비아	39.93
69 캄보디아	39.15
70 리비아	37.86

지역 및 국가별 프로파일

이어지는 지역별 분석에서는, 영어 학습에 관한 과거 자료와 최신 변동 사항을 알아봅니다. 간단한 국가별 프로파일로 영어 교육에 관련된 현지 상황을 보여주는 사실과 수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국가별 자료는 www.ef.co.kr/epi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별 프로필 가이드

국가 이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2.50

70개국 중 **순위**

1	 전년 대비 증감 추이	+3.13↑
2	 TOEFL/IELTS 점수	85; 해당 없음
3	 평균 교육 기간	9.8
4	 교육 예산	19.2%
5	 1인당 GNI	21,060 달러
6	 인구	17,363,894
7	 인터넷 보급률	66.5%
8	 언어	스페인어 (공용어) 99.5%, 영어 10.2%, 원주민어 (마푸둥군어,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라파누이어 포함) 1%, 기타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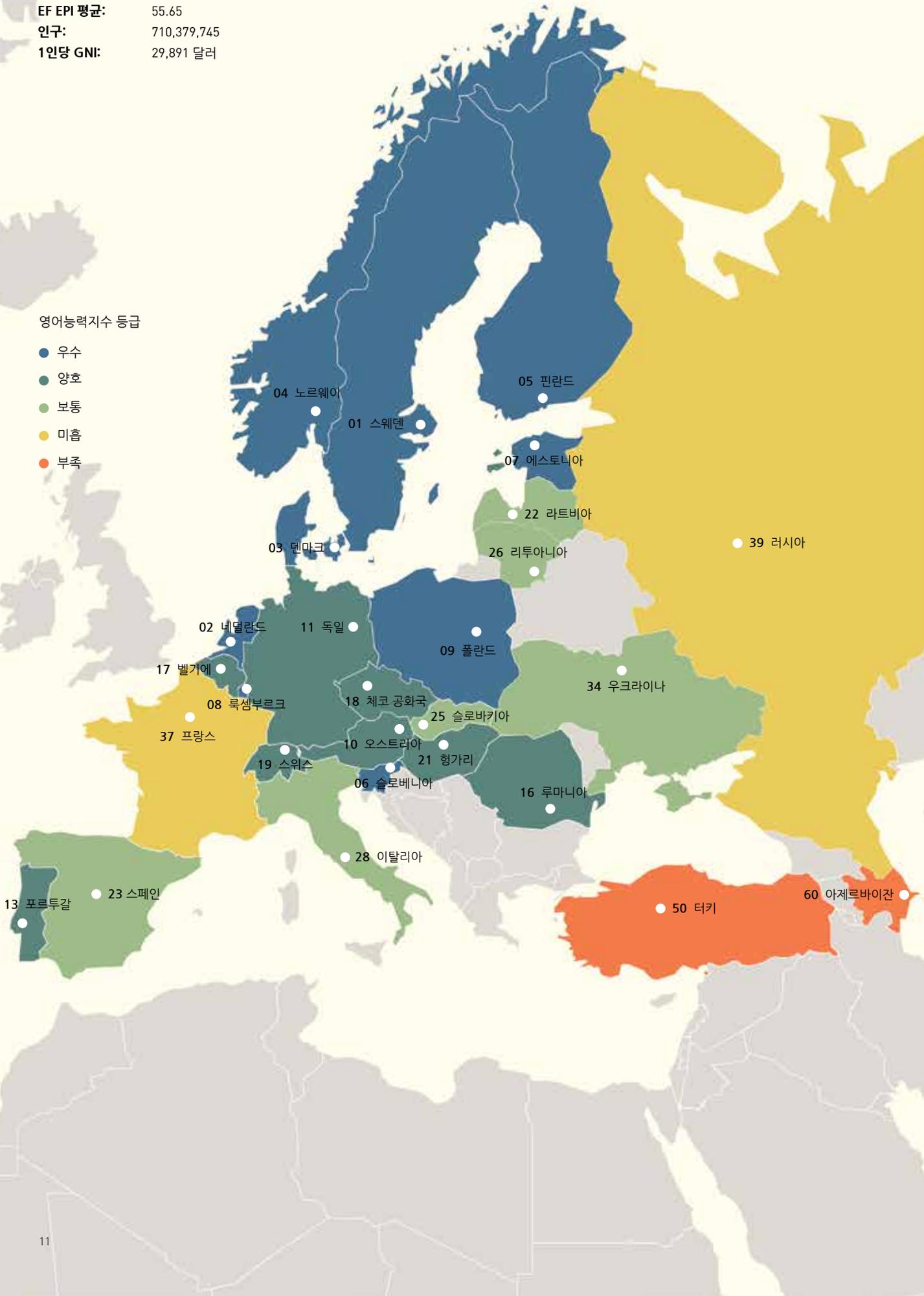
- 1** 이번 EF EPI 점수 변동 내용은 제 4판, 2013년 수집 자료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2.0점(↑↓) 이상 변동한 경우 영어 능력에 큰 변화가 생겼음을 의미합니다. 2.0점(↔) 이하의 변동은 변화가 적었음을 의미합니다. 작년에 비했을 때 세계 평균은 **+1.45** 만큼 변동했으며, 국가별로 낮게는 **-4.10** (카타르)에서 높게는 **+5.07** (파나마)까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 2** 61점(사우디아라비아)에서 **100점**(오스트리아)까지, 69개국이 2013 TOEFL 점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3점**(사우디아라비아)에서 **7.3점**(싱가포르)까지 29개국이 2013 IELTS 기본 점수 평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3** 평균 교육 기간이란 '25세 이상의 사람이 받은 교육 햇수의 평균'으로, 각 교육 단계의 평균 학위 취득 기간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013년 EF EPI 국가 평균은 **9.2년**으로, **2.5년**(예멘)에서 **12.9년**(독일)까지 다양합니다.
- 4** 세계은행 수치는 정부가 교육에 투자한 예산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2010년~2013년 EF EPI 국가 평균은 **14%**였습니다. **7.3%** (아제르바이잔)에서 **31.3%**(태국)까지, 국가별 차이가 큼니다.
- 5**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구매력 평가에 기반하여 국제 달러로 환산한 것입니다. 1 국제 달러는 1 미국 달러와 같은 구매력을 가집니다. 2013년 EF EPI 국가 평균은 **27,845** 달러였습니다. **2,890**달러(캄보디아)에서 **128,530**달러(카타르)까지 범위가 다양합니다.
- 6** 인구 수는 룩셈부르크 520,672명에서 중국 13억 6천만 명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4년 통계 수치는 CIA 세계 통계 자료에 따른 것입니다.
- 7** 인터넷 보급률은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의 비율을 가리킵니다. 2014년 EF EPI 국가 평균은 **56.8%**로, 가장 낮은 **6.0%** (캄보디아)에서 가장 높은 **95.1%** (노르웨이)까지 다양했습니다.
- 8** CIA 세계 통계 자료에서 가져온 자료로, 한 국가 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에서부터 가장 적게 쓰이는 언어까지 순서대로 기재한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언어 사용 인구의 비율도 기재하였습니다.

유럽

EF EPI 평균: 55.65
인구: 710,379,745
1인당 GNI: 29,891 달러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영어와 함께 다중언어 사용을 강조하는 유럽

유럽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영어 능력이 우수합니다. 유럽 연합은 모든 회원국에 '다중언어 사용과 문화 간 교육'을 특별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언어 숙련도의 차이를 포괄하여 유럽에서 사용하는 언어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빛을 발하는 서유럽

평균적으로 서유럽은 유럽의 다른 지역보다 영어 능력이 우수합니다. 지난 50년간의 외국어 교육 정책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동/서에 따라 영어 능력이 갈리기보다는 여러 영어 수준이 유럽 전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빅데이터 수집과 국가 간, 지역 간, 그리고 나라 간에 언어 교육에 대한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는 점이 유럽의 주목할 만한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회는 이러한 강점을 극대화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국가 간에 서로 관찰하며 배우기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비록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유럽은 전체적으로 공용어 사용을 통해 얻는 연결성과 원활한 교류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북유럽의 경쟁력

북유럽의 성인들은 다른 비영어권 국가 사람들에게 비해 유난히 좋은 영어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은 EF EPI에서 매년 상위 5위권 안에 들었으며, 에스토니아와 핀란드 역시 꾸준히 우수한 성적을 보여왔습니다.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와는 달리 북유럽의 남성은 여성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북유럽에도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비록 일상생활에서 의사소통 수준의 영어는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영어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만한 충분한 수준으로는 발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른 바 "천장 효과"로 불리는 이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 최근 여러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가들에서 영어는 모든 학생들에게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영어를 넘어서서 언어의 영역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미 존재하는 언어의 다양성을 보존하려는 노력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어와 독일어를 함께

독일어를 사용하는 중부유럽에서는 특이하게도 다른 연령대보다 18세~20세인 사람의 영어 수준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의 최근 대졸자의 영어 수준을 보면 해당 국가의 영어 교육 방식이 기존 교육 방식보다

더 효과적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해당 국가의 평균 영어 능력 수준은 거의 변하지 않았지만 성년기 초기인 사람들의 수준이 높으므로 긍정적인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OECD PISA 수학, 읽기, 과학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폴란드는 효과적인 교육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대학을 졸업한 30-34세 성인의 영어 실력이 2002년 이래로 3배나 성장했습니다. 폴란드 학교에서는 영어와 독일어가 주요 외국어이며 학생의 3분의 2는 영어를 먼저 배우고 나머지 3분의 1은 독일어를 먼저 배웁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시점에서 대부분의 폴란드 학생은 두 언어 모두 학습을 마치게 됩니다.

다중 언어 사용

벨기에, 룩셈부르크, 스위스는 10여 년의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체계가 어떠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이들 국가의 사례는 학생의 모국어와 지방 언어,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에 걸쳐 언어 수준과 능력의 등급을 나누는 데 유용합니다. 이런 식의 다국어 교육과정을 설계하려면, 각 언어의 역할과, 각 역할에 필요한 기술과, 그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에 대한 논의와 합의가 적절한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뒤쳐진 세 경제 대국

서유럽의 영어 수준이 전부 장밋빛인 것은 아닙니다. 유럽의 거대 비영어권 국가 4곳 중 3곳이 유럽 연합 평균에 미치지 못합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지난 8년간 약간의 발전을 보였지만 프랑스는 여전히 낮은 등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는 주변 국가보다 수준이 너무 낮아 그 수준이 유럽 경계에 있는 국가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영어에 대한 문화적인 반감 때문인지, 혹은 교육 체계를 개혁할 방도를 찾지 못했기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프랑스는 주변 국가들과 다른 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약세를 보이는 유럽 변방 국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영어 능력 지수에 있어서 유럽 평균을 밑도는 수준입니다. 지역 자치로 운영되는 교육 시스템과 언어적 다양성을 가진 거대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의 성인들도 유럽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올해 처음 EF EPI에 실렸고, 터키의 경우는 2012년 이래로 계속해서 점수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터키에서 영어 교육은 상당 부분 문법에 치중되어 있으며 교육 과정이 반복적이고 의사소통 중심 교육이 부족합니다. 문법과 암기를 강조하기에 학생들이 학습 의욕을 잃으며, 수백 시간 교육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실력을 평가했을 때 자신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지만 터키는 영어 능력 향상에 있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터키의 영어 교사들은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를 가르치기에 이미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젊은 청년층의 인구가 많아 학교 교육에 조금의 개선이라도 이루어진다면, 성인 영어 능력 평균에 빠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비록 유럽의 영어 능력 지수가 높고, 성장 추세인 것으로 보이지만, 약세를 보이는 몇몇 국가들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작은 단일 국가에서 거대한 다민족 국가에 이르기까지, 유럽은 고급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많은 학교 시스템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지지로 언어에 대한 세계 표준을 수립했으며, 이로 인해 외국어 교수법과 특히 영어 교육에 있어서 풍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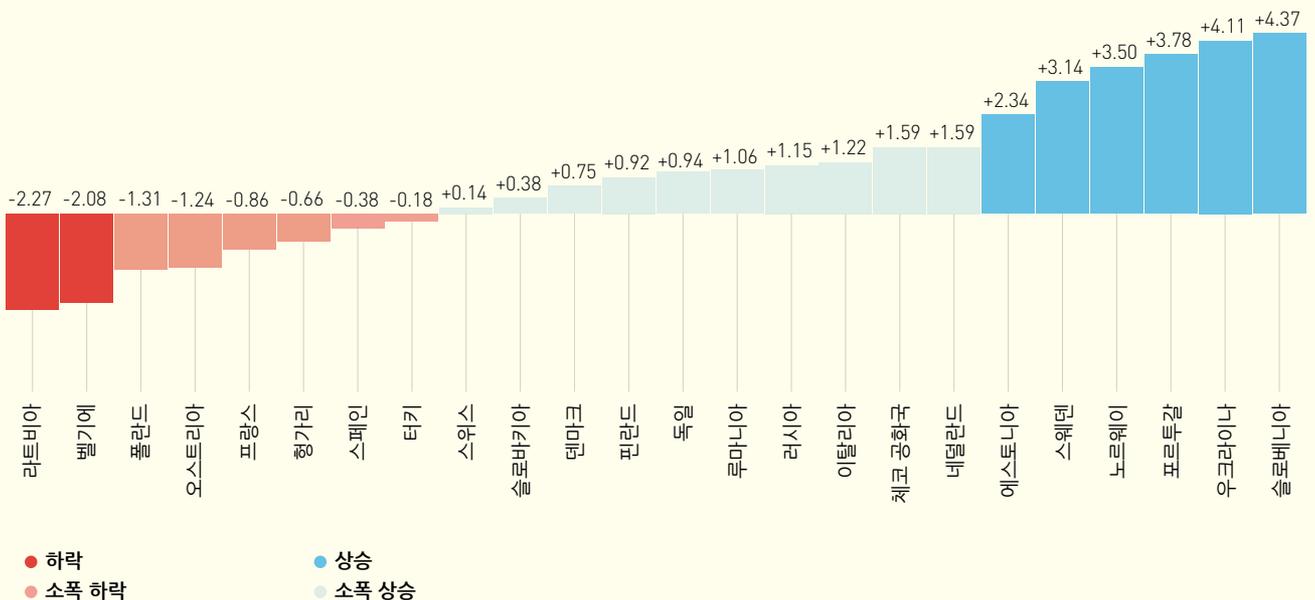
유럽



EF EPI 추세

이미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섯 국가는 2점 이상 점수가 올라 상당한 발전을 보여줬습니다. 눈에 띈 만한 하락세 보인 건 두 국가뿐이었으며 여전히 등급 자체는 높았습니다. 작년 유럽에서 최하위권이었던 국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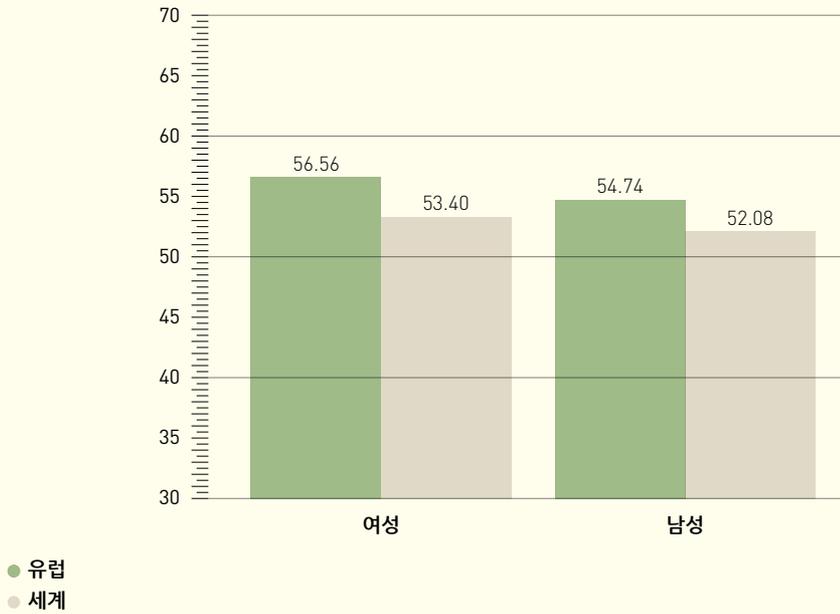
작년 대비 증감 추이



성별에 따른 차이

유럽인은 남성과 여성 모두 영어 능력이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세계적 추세와 같이 유럽 여성은 유럽 남성보다 영어 능력이 높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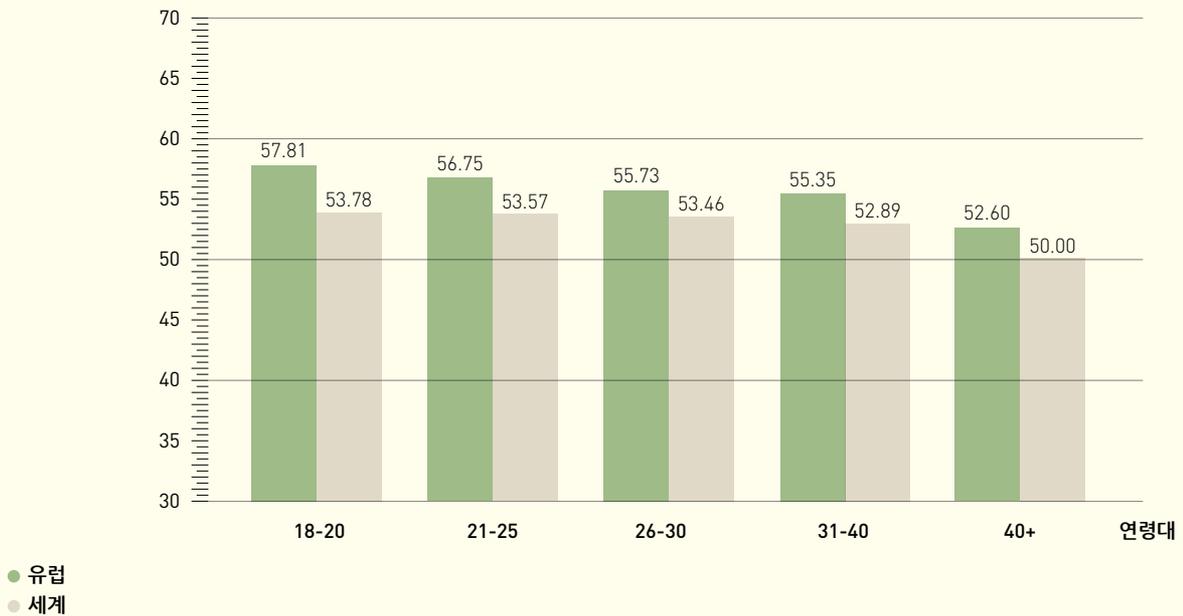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차이

다른 지역들과 달리, 유럽의 경우는 대학에 갈 나이의 성인이 가장 우수한 영어 능력 지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교육 방식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며, 또한 이로써 수년 내에 성인의 평균 영어 능력이 더욱 향상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EF EPI 점수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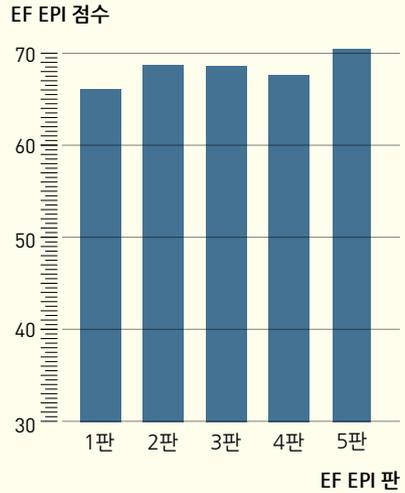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70.94

70개국 중 **1위**



스웨덴이 다시 EF EPI 1위를 탈환했습니다. 올해로 무려 3회째 1위를 차지했습니다. 스웨덴은 성별 간 실력 차이가 적긴 하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영어 실력이 뛰어난 얼마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스웨덴의 가장 최근 교육 혁신은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의 도입과 국립대 프로그램에 등록할 때 영어를 필수로 요구하도록 한 것으로, 지출을 크게 늘리지 않고도 지속적으로 개선된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14 ↑
TOEFL/IELTS 점수	94;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7
교육 예산	13.2%
1인당 GNI	46,170 달러
인구	9,723,809
인터넷 보급률	94.8%
언어	스웨덴어(공용어), 소수 민족이 사미어 및 핀란드어 사용



네덜란드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70.58

70개국 중 **2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59 ↗
TOEFL/IELTS 점수	해당 없음;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9
교육 예산	11.9%
1인당 GNI	46,260 달러
인구	16,877,351
인터넷 보급률	94.0%
언어	네덜란드어(공용어)

덴마크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70.05

70개국 중 **3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75 ↗
TOEFL/IELTS 점수	98;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1
교육 예산	15.2%
1인당 GNI	45,300 달러
인구	5,569,077
인터넷 보급률	94.6%
언어	덴마크어, 페로어, 그린란드어(이누이트족 방언), 독일어(소수 민족)

노르웨이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7.83

70개국 중 **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50 ↑
 TOEFL/IELTS 점수	94;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6
 교육 예산	15.0%
 1인당 GNI	65,450 달러
 인구	5,147,792
 인터넷 보급률	95.1%
 언어	부크몰 노르웨이어(공용어), 뉴노르스크 노르웨이어(공용어), 소수 민족이 사미어 및 핀란드어 사용

핀란드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5.32

70개국 중 **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92 ↗
 TOEFL/IELTS 점수	96;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0.3
 교육 예산	12.3%
 1인당 GNI	39,860 달러
 인구	5,268,799
 인터넷 보급률	91.5%
 언어	핀란드어(공용어) 94.2%, 스웨덴어 (공용어) 5.3%, 기타(소수 민족이 사미어 및 러시아어 사용) 5.4%

슬로베니아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4.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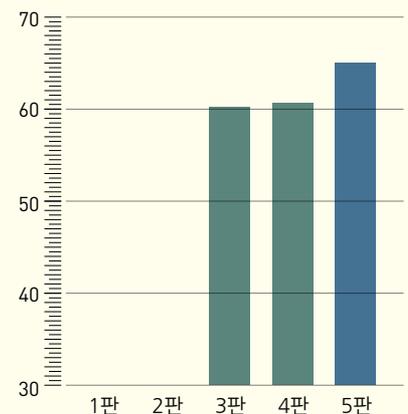
70개국 중 **6위**



슬로베니아 성인의 영어 능력은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지난 2년간 유럽에서 가장 큰 점수 변화를 보였습니다. TOEFL이나 PISA와 같은 국제 테스트에서 OECD 상대국을 꾸준히 능가해 온 슬로베니아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니면서도 영어 능력이 특출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슬로베니아는 역사적으로 다국어 문화가 있었던 국가입니다. 현재 영어는 교육 과정에서 독일어와 함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두 언어 모두를 배웁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37 ↑
 TOEFL/IELTS 점수	96;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9
 교육 예산	12.1%
 1인당 GNI	28,650 달러
 인구	1,988,292
 인터넷 보급률	72.7%
 언어	슬로베니아어(공용어) 91.1%, 세르보크로아티아어 4.5%, 기타 혹은 불확실 4.4%

EF EPI 점수



EF EPI 판

에스토니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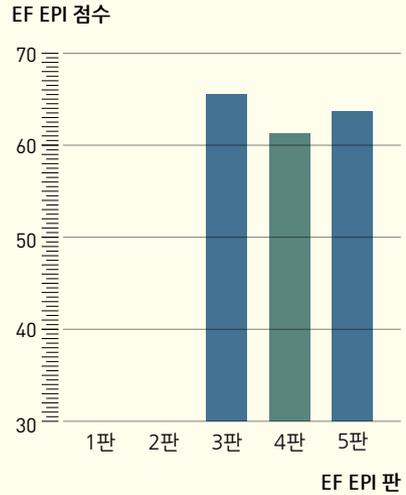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3.73



70개국 중 **7위**

에스토니아는 모든 학생이 영어를 제2언어 혹은 제3언어로 배우는 다국어 국가입니다. 러시아어가 모국어인 에스토니아인은 에스토니아어를 먼저 배운 후에 영어를 배웁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는 경제 최하위권에 속하지만 에스토니아의 성인 영어 능력 수준은 에스토니아보다 1인당 GNI가 훨씬 높은 국가의 수준보다도 높습니다. 에스토니아의 대학생의 절반은 영어를 교육 과정의 일부로 배우게 되며, 탈린 대학은 모든 학생에게 외국어에 있어 C1 레벨에 도달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에스토니아를 비롯하여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국가는 모두 전공에 상관없이 대학 수준의 교육을 영어로 가르칩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34 ↑
TOEFL/IELTS 점수	94;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0
교육 예산	13.7%
1인당 GNI	24,920 달러
인구	1,257,921
인터넷 보급률	80.0%
언어	에스토니아어(공용어) 68.5%, 러시아어 29.6%, 기타 1.2%



룩셈부르크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3.45



70개국 중 **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97;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3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57,830 달러
인구	520,672
인터넷 보급률	93.8%
언어	룩셈부르크어(공용어이자 국어), 프랑스어(공용어), 독일어(공용어)

폴란드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2.95



70개국 중 **9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31 ↓
TOEFL/IELTS 점수	90; 6.3
평균 교육 기간	11.8
교육 예산	11.4%
1인당 GNI	22,830 달러
인구	38,346,279
인터넷 보급률	62.8%
언어	폴란드어(공용어) 96.2%, 실레지아어 1.4%, 기타 1.1%, 불확실 1.3%

오스트리아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61.97

70개국 중 **10위**



📅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24 ↓
📄 TOEFL/IELTS 점수	100: 해당 없음
🏠 평균 교육 기간	10.8
📖 교육 예산	11.4%
💰 1인당 GNI	45,450 달러
👤 인구	8,223,062
🌐 인터넷 보급률	80.6%
🗨️ 언어	독일어(공용어) 88.6%, 터키어 2.3%, 세르비아어 2.2%, 크로아티아어(부르겐란트에서 공용어) 1.6%, 기타 5.3%

독일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61.83

70개국 중 **11위**



📅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94 ↗
📄 TOEFL/IELTS 점수	97: 7.0
🏠 평균 교육 기간	12.9
📖 교육 예산	11.0%
💰 1인당 GNI	45,010 달러
👤 인구	80,996,685
🌐 인터넷 보급률	84.0%
🗨️ 언어	독일어(공용어)

포르투갈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60.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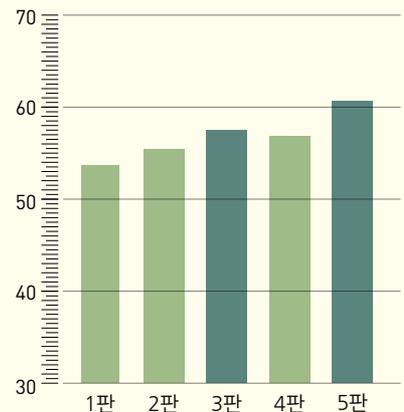
70개국 중 **13위**



2007년부터 계속해서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포르투갈의 영어 능력 수준은 여전히 주변 국가와 비교했을 때 평균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계적 추세와는 달리 포르투갈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영어 능력이 뛰어납니다. 유럽에서 평균 교육 기간이 가장 짧은 나라 중 하나임을 고려하면, 포르투갈의 영어 능력 지수는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89년에 영어는 모든 포르투갈 어린이에게 필수 교과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어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의 특별한 조치는 영어 능력 지수 상위권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점입니다.

📅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78 ↑
📄 TOEFL/IELTS 점수	95: 해당 없음
🏠 평균 교육 기간	8.2
📖 교육 예산	10.7%
💰 1인당 GNI	27,190 달러
👤 인구	10,813,834
🌐 인터넷 보급률	62.1%
🗨️ 언어	포르투갈어(공용어), 미란다어(공용어이나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

EF EPI 점수



EF EPI 판

루마니아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59.69

70개국 중 **16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06 ↗
TOEFL/IELTS 점수	91;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0.7
교육 예산	8.3%
1인당 GNI	18,390 달러
인구	21,729,871
인터넷 보급률	49.8%
언어	루마니아어(공용어) 85.4%, 헝가리어 6.3%, 롬어(집시) 1.2%, 기타 1%, 불확실 6.1%

벨기에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59.13

70개국 중 **17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08 ↓
TOEFL/IELTS 점수	97;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0.9
교육 예산	12.2%
1인당 GNI	41,160 달러
인구	10,449,361
인터넷 보급률	82.2%
언어	네덜란드어(공용어) 60%, 프랑스어(공용어) 40%, 독일어(공용어) 1% 미만

체코 공화국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59.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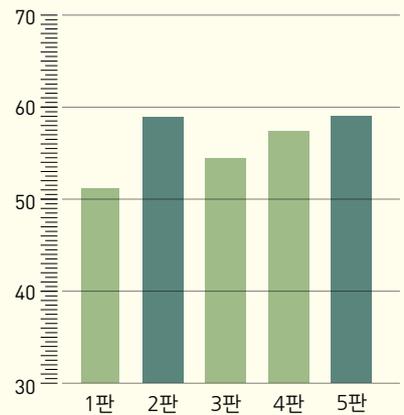
70개국 중 **18위**



체코 공화국은 영어 능력 지수가 양호 등급으로 돌아왔습니다. 2007년 이후 계속해서 점수가 크게 변동했으나, 전체적으로는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교육 체계에서 영어를 외국어 선택과목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체코의 평균 교육 기간인 12.3년은 세계 수준에서도 꽤 장기간에 속합니다. 체코는 이미 훌륭한 학교들을 갖추고 있지만, 2005년 이래로 계속해서 교육 예산을 늘려왔습니다. 더불어, 체코 정부는 최근 교육 부문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59 ↗
TOEFL/IELTS 점수	91;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3
교육 예산	10.4%
1인당 GNI	26,970 달러
인구	10,627,448
인터넷 보급률	74.1%
언어	체코어 95.4%, 슬로바키아어 1.6%, 기타 3%

EF EPI 점수



EF EPI 판

스위스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58.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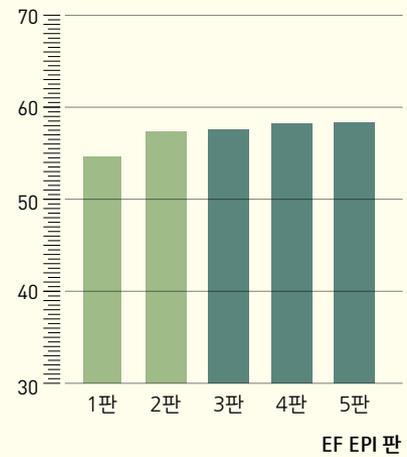


70개국 중 **19위**

스위스는 3개의 공식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중 영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스위스의 높은 영어 능력 수준이 더 놀랍습니다. 모든 학생이 학교에서 적어도 두 개의 국어를 배우며, 스위스 교육 체계에 영어가 중심 국어로서 추가되었습니다. 스위스는 이와 같이 성공적인 다언어 교육 체계의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지역 내에서 1인당 GNI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유럽 대부분의 국가보다 교육에 더 많은 예산을 책정하는 편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14 ↗
 TOEFL/IELTS 점수	97: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2
 교육 예산	15.9%
 1인당 GNI	59,610 달러
 인구	8,061,516
 인터넷 보급률	86.7%
 언어	독일어(공용어) 64.9%, 프랑스어(공용어) 22.6%, 이탈리아어(공용어) 8.3%, 세르보크로아티아어 2.5%, 알바니아어 2.6%, 포르투갈어 3.4%, 스페인어 2.2%, 영어 4.6%, 기타 5.1%

EF EPI 점수



헝가리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57.90



70개국 중 **21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66 ↘
 TOEFL/IELTS 점수	92: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3
 교육 예산	9.4%
 1인당 GNI	22,660 달러
 인구	9,919,128
 인터넷 보급률	72.6%
 언어	헝가리어(공용어) 99.6%, 영어 16%, 독일어 11.2%, 러시아어 1.6%, 루마니아어 1.3%, 프랑스어 1.2%, 기타 4.2%

라트비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7.16



70개국 중 **22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27 ↘
 TOEFL/IELTS 점수	89: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5
 교육 예산	8.9%
 1인당 GNI	22,510 달러
 인구	2,165,165
 인터넷 보급률	75.2%
 언어	라트비아어(공용어) 56.3%, 러시아어 33.8%, 불확실 9.4%

스페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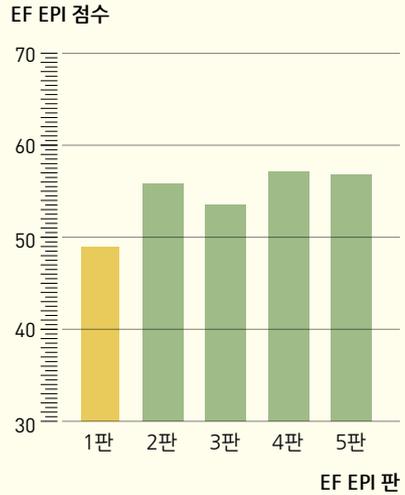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6.80



70개국 중 **23위**

스페인의 영어 능력은 상당히 향상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스페인 정부는 2개 국어 교육과 언어 교환에 관련된 대규모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2004년에 대규모로 스페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개 국어 교육을 시범 운영했는데 공교육 체계에서 영어 교육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과목 학습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스페인에서는 남녀의 EF EPI 점수 차이가 세계에서 가장 적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38 ↘
 TOEFL/IELTS 점수	89: 6.6
 평균 교육 기간	9.6
 교육 예산	10.9%
 1인당 GNI	32,870 달러
 인구	47,737,941
 인터넷 보급률	71.6%
 언어	카스티야 스페인어(공용어) 74%, 카탈로니아어 17%, 갈리시아어 7%, 바스크어 2%



슬로바키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6.34



70개국 중 **2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38 ↗
 TOEFL/IELTS 점수	90: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6
 교육 예산	10.4%
 1인당 GNI	25,970 달러
 인구	5,443,583
 인터넷 보급률	77.9%
 언어	슬로바키아어(공용어) 78.6%, 헝가리어 9.4%, 로마어 2.3%, 루테니아어 1%, 기타 혹은 불확실 8.8%

리투아니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5.08



70개국 중 **26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86: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2.4
 교육 예산	13.6%
 1인당 GNI	24,530 달러
 인구	3,505,738
 인터넷 보급률	68.5%
 언어	리투아니아어(공용어) 82%, 러시아어 8%, 폴란드어 5.6%, 불확실 3.5%

이탈리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4.02

70개국 중 **2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22 ↗
TOEFL/IELTS 점수	91; 6.2
평균 교육 기간	10.1
교육 예산	8.0%
1인당 GNI	35,220 달러
인구	61,680,122
인터넷 보급률	58.5%
언어	이탈리아어(공용어), 독일어, 프랑스어, 슬로베니아어

우크라이나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2.61

70개국 중 **3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11 ↑
TOEFL/IELTS 점수	83; 5.8
평균 교육 기간	11.3
교육 예산	13.7%
1인당 GNI	8,970 달러
인구	44,291,413
인터넷 보급률	41.8%
언어	우크라이나어(공용어) 67.5%, 러시아어(지방어) 29.6%, 기타 2.9%

프랑스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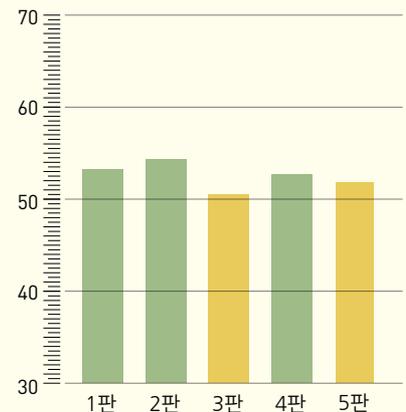
70개국 중 **37위**



프랑스는 유럽 연합 내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차지했습니다. 이는 세계 성인의 평균과 비교해도 약간 낮은 수치입니다. 프랑스의 EF EPI 점수는 지난 8년간 거의 바뀌지 않았지만 순위는 다른 국가가 추가됨에 따라 20위나 낮아졌습니다. 안타깝게도 프랑스의 점수가 근시일 내에 바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의 프랑스 대졸자와 그보다 더 나이 든 프랑스 성인의 영어 능력 수준은 비슷합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86 ↘
TOEFL/IELTS 점수	88; 6.7
평균 교육 기간	11.1
교육 예산	9.9%
1인당 GNI	38,180 달러
인구	66,259,012
인터넷 보급률	81.9%
언어	프랑스어(공용어) 100%

EF EPI 점수



EF EPI 판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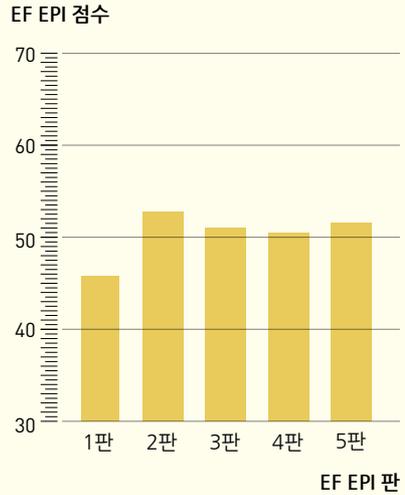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59



70개국 중 **39위**

러시아의 성인 영어 능력 수준은 유럽 평균보다 매우 낮으며 여성과 남성 간의 차이도 큼니다. 러시아에서 열릴 2018년 FIFA 월드컵에 대비하여, 러시아 정부는 외국인 관광객을 맞을 전문 여행 가이드들에 대한 기본적인 영어 교육을 배로 강화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는 그 큰 대륙에 걸쳐 수준 높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숙달된 영어 교사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15%
 TOEFL/IELTS 점수	84: 6.4
 평균 교육 기간	11.7
 교육 예산	12.0%
 1인당 GNI	24,280 달러
 인구	142,470,272
 인터넷 보급률	61.4%
 언어	러시아어(공용어), 독일어, 체첸어, 타타르어, 기타



터키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62



70개국 중 **50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18%
 TOEFL/IELTS 점수	76: 5.4
 평균 교육 기간	7.6
 교육 예산	8.6%
 1인당 GNI	18,570 달러
 인구	81,619,392
 인터넷 보급률	46.3%
 언어	터키어(공용어), 쿠르드어, 기타 소수 민족 언어

아제르바이잔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12



70개국 중 **60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78: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1.2
 교육 예산	7.3%
 1인당 GNI	16,180 달러
 인구	9,686,210
 인터넷 보급률	58.7%
 언어	아제르바이잔어(아제리어)(공용어) 92.5%, 독일어(공용어) 1% 미만



부다페스트

유럽은 전체적으로 공용어 사용을 통해 얻는 연결성과 원활한 교류로 인한 혜택을 누리기에 유리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EF EPI 평균: 53.21
인구: 3,503,467,893
1인당 GNI: 10,319 달러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영어 교육과 평가법을 개혁한 아시아

2007년 이래로 아시아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많은 향상을 보였습니다.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아시아에는 다양한 영어 능력 등급이 혼재해 있습니다. 싱가포르와 캄보디아의 점수 격차는 무려 20점이나 됩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국제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장

올해 처음으로 인도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와 함께 아시아 지역 상위권에 들어갔습니다. 카자흐스탄과 베트남 역시 작년부터 아시아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이 국가들의 영어 능력은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홍콩, 일본, 대한민국의 영어 능력은 영어 교육에 투자하는 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태국은 작년부터 아시아에서 가장 급격한 하락세를 보였으며, 가장 낮은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타이완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성장하진 않았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국가보다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교사 양성 정책

올해 말레이시아 성인 영어 능력 평균은 지금까지의 모든 EF EPI 리포트에서와 동일하게 양호 등급에 그쳤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이미 영어 실력이 양호한 편임에도 불구하고, 2011년에 대규모의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영어 전문 교사 양성 프로그램(Pro-ELT)은 교사의 영어 능력을 고급 레벨(C1)로 향상시키고 교수법을 발전시켜서, 학생들이 말레이시아어와 영어를 모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입니다.

영어 전문 교사 양성 프로그램(Pro-ELT)은 2020년까지 모든 단계의 진학률을 100%로 끌어올리기 위한 교육 개혁의 일환입니다. 목표는 향후 15년 안에 PISA나 TIMSS와 같은 국제적 평가에서 3위 내에 오르고, 부유층과 빈곤층, 도시와 지방 간에 교육 수준의 격차를 50%까지 줄이는 것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의 야심 찬 목표는 교육 개혁의 노력과 더불어 말레이시아 학생들이 더 나은 영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데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험과 교육 방식을 바꾼 중국

중국은 영어 교육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지만 여전히 영어 능력 등급이 미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지방 곳곳에 걸친 엄청난 인구수를 생각했을 때, 중국의 전체적인 영어 능력 지수가 두드러질 만큼 성장하는 것은 사실 어려운 일입니다.

최근에 중국의 영어 교육과 시험 대비 기관은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도심지만이 아닌 소도시와 외떨어진 지방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입니다. 중국의 온라인 학습자는 2013년의 6,720만에서 2017년에는 1억2천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 10월에 베이징 시 교육 위원회는 2016년부터 대학 입학시험인 '가오카오'의 영어 부분을 3단계로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안 일부는 가오카오 영어 시험의 총점수와 비중을 줄이고, 현재의 하루 만에 시험을 모두 마쳐야 하는 압박이 심한 방식에서 시험을 여러 번에 나눠서 본 후 가장 잘 나온 점수를 택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영어 능력을 더 정확히 반영하고 시험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줄이며, 단순 암기만 하는 영어 학습 문화를 바꾸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어 사교육 열풍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인당 영어 사교육 지출 비용이 가장 큰 나라입니다. 2013년 사교육 지출 비용은 약 184억으로, 그중 3분의 1이 영어 교육에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투자하지만 대한민국 성인의 영어 능력은 향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어 사교육의 열풍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실책으로 인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영어는 한국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 중에 높은 수준으로 제대로 교육하지 못하는 몇 안 되는 과목 중 하나입니다. 모든 학생들이 학교에서 영어를 국제적 의사소통의 충분한 수준으로 배우게 될 때야, 한국의 "영어 사교육 열풍"이 사그라드는 걸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준화를 추진한 일본과 태국

일본의 효율적인 교육 시스템에서 영어는 교과목으로 채택되어 있었지만, 일본어로 된 교재로는 영어를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없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몇 번의 교육 개혁 실패 후, 일본 정부는 사립 영어 시험을 지원하기 시작했고, 이 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의 고등학교와 대학들에게 좀 더 실용적인 영어를 가르칠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일본식으로 만들어진 시험 형식에서 벗어나자, 교육계에서는 학교 시스템의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 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고,

각 학교들은 시험 결과에 책임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립 영어 시험의 경우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일본과 같이 재정적으로 안정된 국가만이 지원을 지속, 운영할 수 있습니다.

태국은 대규모 관광 산업으로 유명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의 영어 능력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올해 5월부터 태국 정부는 영어 교육을 표준화하기 위해 자국 학교에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에 맞춰 영어 교육을 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모든 고등학교 졸업자가 영어 B1 레벨에 도달하도록 한다는 적절한 수준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결론

많은 아시아 국가들이 영어 교육을 각국의 교육 체계에서 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영어가 경제 성장의 견인차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일부 국가만이 영어 교육에 있어 양호한 수준이고,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시아 교육 체계가 국제적으로 수학, 과학, 읽기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것을 보면 영어 교육 수준과의 차이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시아가 점점 더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 있는 입지를 갖게 됨에 따라, 문화 상호 간 의사소통에 준비된 인재들을 양성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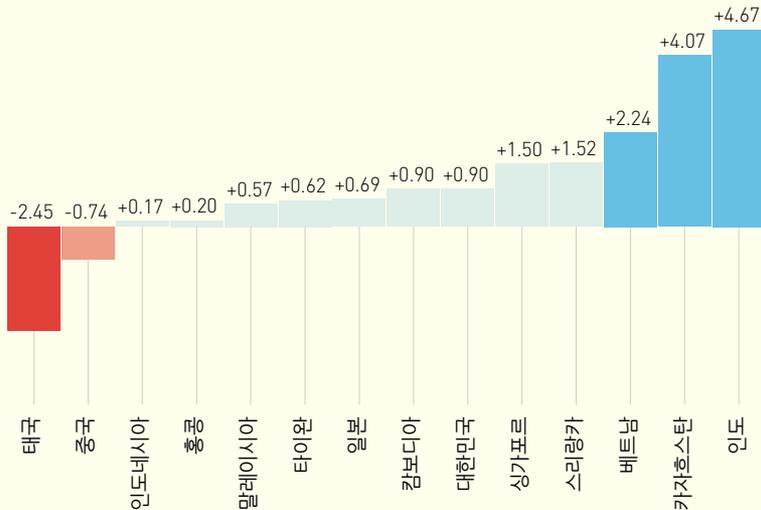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영어 교육에 많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작년 EF EPI 점수에 비해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변화를 보인 곳은 영어 능력 지수가 현저히 하락한 태국과, 작년에 비해 상당한 진전을 보인 인도, 카자흐스탄, 베트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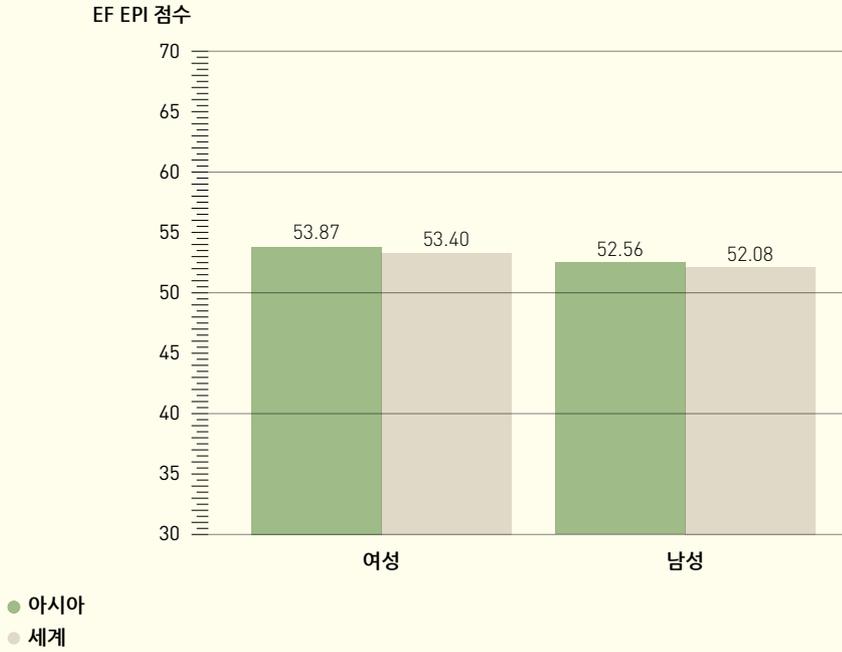
작년 대비 증감 추이



- 하락
- 소폭 하락
- 상승
- 소폭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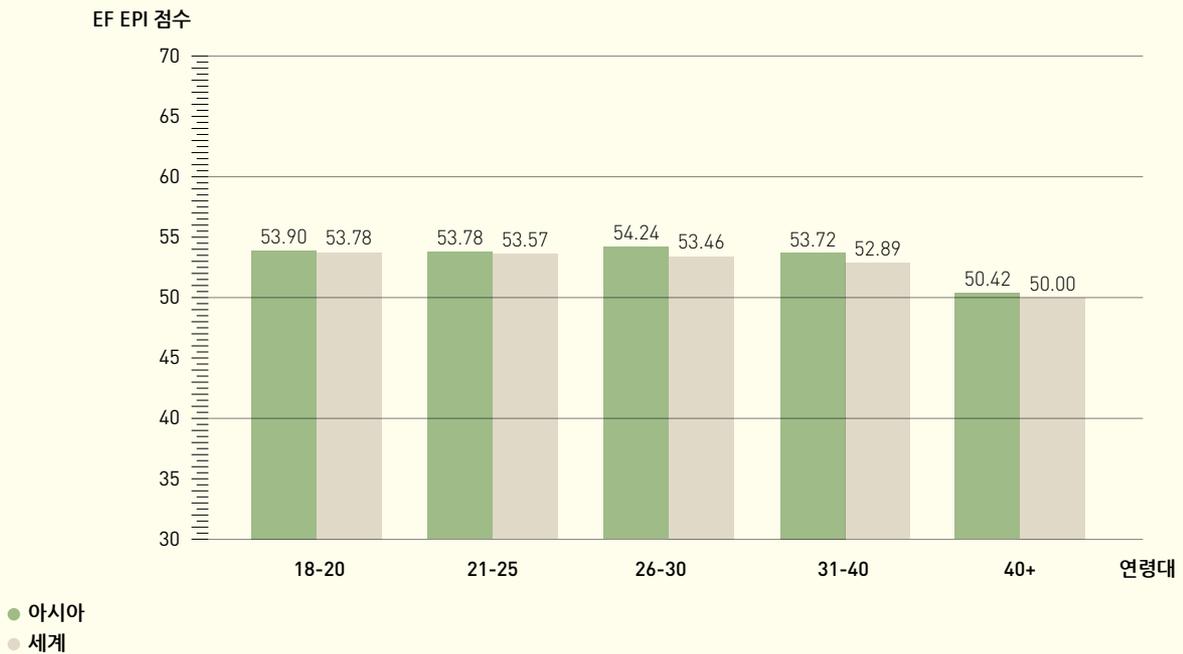
성별에 따른 차이

아시아 여성과 남성 모두 세계 평균보다 살짝 위에 있으며 아시아 여성이 남성보다 실력이 더 뛰어납니다.



세대 간 차이

올해 아시아 국가들은 세계 평균에 도달하거나 좀 더 앞섰습니다. 40세를 기준으로 영어 능력 수준이 상당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싱가포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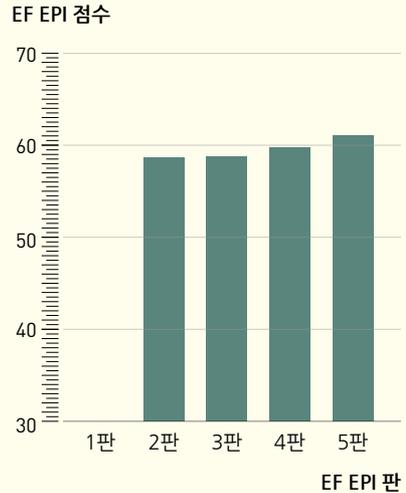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1.08



70개국 중 **12위**

이미 높은 수준에서 시작해서 싱가포르의 영어 실력은 지난 6년간 꾸준히 향상했습니다. 높은 인구 밀도에, 다언어, 다민족 국가인 싱가포르는 영어를 공식 공용어로 사용하는 몇 안 되는 아시아 국가 중 하나입니다. 싱가포르는 인터넷 보급률, 1인당 GNI, 평균 교육 기간, 정부 지출 중 교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여러 사회 경제적 지표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싱가포르는 OECD가 평가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는 국가 리스트에 지속적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50 ↗
TOEFL/IELTS 점수	98; 7.3
평균 교육 기간	10.2
교육 예산	17.5%
1인당 GNI	76,860 달러
인구	5,567,301
인터넷 보급률	73.0%
언어	관화(공용어) 36.3%, 영어(공용어) 29.8%, 말레이어(공용어) 11.9%, 복건어 8.1%, 타밀어(공용어) 4.4%, 광둥어 4.1%, 조주어 3.2%, 기타 3.4%



말레이시아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60.30



70개국 중 **1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57 ↗
TOEFL/IELTS 점수	89; 7.0
평균 교육 기간	9.5
교육 예산	21.0%
1인당 GNI	22,530 달러
인구	30,073,353
인터넷 보급률	67.0%
언어	바하사말레이시아어(공용어), 영어, 중국어(광둥어, 관화, 복건어, 하카어, 하이난어, 푸저우어), 타밀어, 텔루구어, 말라얄람어, 펀자브어, 태국어

인도

영어능력 우수
EF EPI 점수: 58.21



70개국 중 **20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67 ↑
TOEFL/IELTS 점수	91; 6.2
평균 교육 기간	4.4
교육 예산	12.9%
1인당 GNI	5,350 달러
인구	1,236,344,631
인터넷 보급률	15.1%
언어	힌디어 41%, 벵골어 8.1%, 텔루구어 7.2%, 마라티어 7%, 타밀어 5.9%, 우르두어 5%, 구자라트어 4.5%, 칸나다어 3.7%, 말라얄람어 3.2%, 오리아어 3.2%, 펀자브어 2.8%, 아삼어 1.3%, 마이틸리어 1.2%, 기타 5.9%

대한민국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4.52

70개국 중 **27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90 ↗
 TOEFL/IELTS 점수	85; 5.5
 평균 교육 기간	11.8
 교육 예산	25.0%
 1인당 GNI	33,360 달러
 인구	49,039,986
 인터넷 보급률	84.8%
 언어	한국어, 영어(중학교, 고등학교에서 광범위하게 교육)

베트남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3.81

70개국 중 **29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24 ↑
 TOEFL/IELTS 점수	78; 5.9
 평균 교육 기간	5.5
 교육 예산	21.4%
 1인당 GNI	5,070 달러
 인구	93,421,835
 인터넷 보급률	43.9%
 언어	베트남어(공용어), 영어, 일부 프랑스어, 중국어, 크메르어, 산악 지대 언어

일본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3.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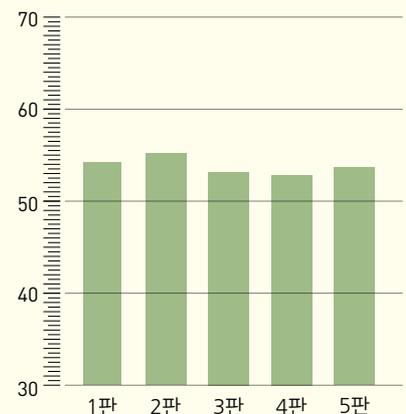
70개국 중 **30위**



일본의 영어 능력 지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현재는 모든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에서 영어를 배우고 있지만, 일본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은 겨우 2011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영어 교육은 책에 의존된 방식으로 일본식 발음표기, 암기, 반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번역에 그쳤습니다. 국제적 소통 수단으로써의 영어의 역할은 거의 강조되지 않습니다. 영어 능력의 향상을 위해 수차례의 교육 개혁이 시행되었으나, 현재까지는 성인의 영어 실력의 변화는 관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69 ↗
 TOEFL/IELTS 점수	70; 5.6
 평균 교육 기간	11.5
 교육 예산	9.5%
 1인당 GNI	37,550 달러
 인구	127,103,388
 인터넷 보급률	86.3%
 언어	일본어

EF EPI 점수



EF EPI 판

타이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3.18

70개국 중 **31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62 ↗
 TOEFL/IELTS 점수	79: 6.0
 평균 교육 기간	해당 없음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해당 없음
 인구	23,359,928
 인터넷 보급률	해당 없음
 언어	관화(공용어), 타이완어(민어), 하카어

인도네시아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2.91

70개국 중 **32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17 ↗
 TOEFL/IELTS 점수	82: 6.2
 평균 교육 기간	7.5
 교육 예산	18.1%
 1인당 GNI	9,270 달러
 인구	253,609,643
 인터넷 보급률	15.8%
 언어	바하사인도네시아어(공용어), 영어, 네덜란드어, 지방어

홍콩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2.70

70개국 중 **33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20 ↗
 TOEFL/IELTS 점수	83: 6.3
 평균 교육 기간	10.0
 교육 예산	18.2%
 1인당 GNI	54,270 달러
 인구	7,112,688
 인터넷 보급률	74.2%
 언어	광둥어(공용어) 89.5%, 영어(공용어) 3.5%, 보통화(관화) 1.4%, 기타 중국 방언 4%, 기타 1.6%

파키스탄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49.96

70개국 중 **4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90: 6.2
 평균 교육 기간	4.7
 교육 예산	10.9%
 1인당 GNI	4,840 달러
 인구	196,174,380
 인터넷 보급률	10.9%
 언어	펀자브어 48%, 신디어 12%, 사라이키어(펀자브어 방언) 10%, 파슈토어(파슈투어라고도 함) 8%, 우르두어(공용어) 8%, 발루치어 3%, 힌드코어 2%, 브라후이어 1%, 영어(공용어), 부루샤스키어, 기타 8%

중국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4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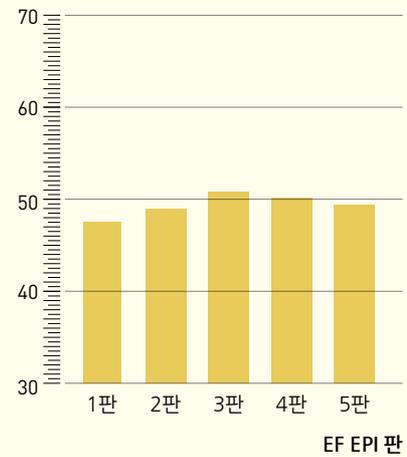


70개국 중 **47위**

중국은 방대한 국토와, 엄청난 인구수, 그리고 성인의 영어 학습 필요성으로 인해 온라인을 통한 교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중국의 영어 교육 회사들이 온라인 채널을 확장하고, 인터넷을 통해 외딴 지역까지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 학습 서비스가 급속히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보급률이 아직 50% 미만에 그쳐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는 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74 ↓
 TOEFL/IELTS 점수	77: 6.0
 평균 교육 기간	7.5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11,850 달러
 인구	1,355,692,576
 인터넷 보급률	45.8%
 언어	관화(공용어), 광둥어, 상하이어, 푸저우어, 타이완 복건어, 샹어, 간어, 하카어, 소수 민족 언어

EF EPI 점수



스리랑카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89



70개국 중 **49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52 ↗
 TOEFL/IELTS 점수	85: 6.3
 평균 교육 기간	10.8
 교육 예산	8.8%
 1인당 GNI	9,470 달러
 인구	21,866,445
 인터넷 보급률	21.9%
 언어	싱할라어(공용어이자 국어) 74%, 타밀어(국어) 18%, 기타 8%

카자흐스탄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04



70개국 중 **5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07 ↑
 TOEFL/IELTS 점수	80: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10.4
 교육 예산	13.0%
 1인당 GNI	20,680 달러
 인구	17,948,816
 인터넷 보급률	54.0%
 언어	러시아어(공용어) 95%, 카자흐어 (공용어, 카자크어) 64.4%

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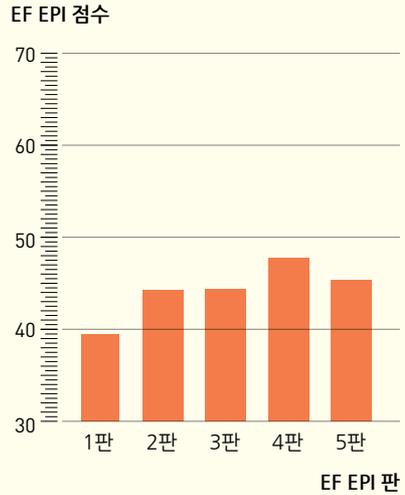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5.35



70개국 중 **62위**

태국의 학교는 국제적 평가 기준에서 모든 영역에 걸쳐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평균 교육 기간도 아시아 지역 평균보다 짧는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국가의 성인들보다 태국의 성인들이 교육을 적게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태국의 주요 산업인 관광 산업을 위해서는 영어 실력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태국 성인의 영어 능력은 미흡한 수준입니다. 1인당 GNI가 낮아서, 일부 부유층은 사립 학교나 영어 과외로 공부할 수 있지만, 모두가 그런 교육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45 ↓
TOEFL/IELTS 점수	76; 5.3
평균 교육 기간	7.3
교육 예산	31.3%
1인당 GNI	13,430 달러
인구	67,741,401
인터넷 보급률	28.9%
언어	태국어(공용어) 90.7%, 버마어 1.3%, 기타 8%



몽골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3.64



70개국 중 **6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70;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8.3
교육 예산	12.2%
1인당 GNI	8,810 달러
인구	2,953,190
인터넷 보급률	17.7%
언어	할하 몽골어 (공용어) 90%, 터키어, 러시아어

캄보디아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39.15



70개국 중 **69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90 ↗
TOEFL/IELTS 점수	69;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5.8
교육 예산	13.1%
1인당 GNI	2,890 달러
인구	15,458,332
인터넷 보급률	6.0%
언어	크메르어(공용어) 96.3%, 기타 3.7%

아시아 국가들은 가속화되는 세계화와 국제경제에 대응하기 위해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상하이

라틴 아메리카

EF EPI 평균: 51.26
 인구: 547,066,813
 1인당 GNI: 14,744 달러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라틴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의 성인 영어 능력은 2007년 후로 상승세를 그리고 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입니다. 이번 EF EPI에 기재된 14개 라틴 아메리카 국가는 1개국을 제외하고 전부 작년에 비해 영어 능력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개국을 제외한 라틴 아메리카의 영어 능력은 여전히 미흡한 수준입니다.

정부가 영어를 최우선 목표로 삼다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 교육 체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2014년에 공립 학교 영어 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이 유효하다면, 전문 교사 양성 프로그램은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아이들에게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청년들은 이미 꽤 높은 수준의 영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같은 연령대의 세계 평균에서 거의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을 위한 영어 교육 프로그램은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칠레와 파나마의 교육 개혁

칠레는 OECD와 UNESCO 국제 교육 평가에서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가장 높은 성적을 거두었으며, EF EPI에서도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2003년 칠레 교육부는 라틴 아메리카에서 최초로 국가 주도 영어 교육 정책인 English Opens Doors 라는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00 여명의 외국인 영어 교사를 채용, 교육했으며, 영어 집중 캠프와 대회를 개최하고, 칠레 교사들의 성장을 위한 전문적인 지원을 시행했습니다. 대통령 미셸 바첼레트는 2014년에 재선된 이후로 임기 동안 1,000개의 칠레 학교에 프로그램을 전파했습니다.

파나마의 EF EPI 점수는 작년과 비교했을 때 세계 다른 어떤 국가보다도 많이 올랐습니다. 이러한 성장세에도 대부분의 파나마 성인들은 외국과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준의 영어 실력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대통령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는 영어가 파나마 경제 성장의 핵심 요소라고 판단하고 2014년에 파나마 2개 국어 프로그램(Panama Bilingual Program) 을 도입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현지 및 해외 교사 육성, 초등학교 영어 보충수업, 중학교 방과 후 영어 교실 운영 등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향후 4년 내에 2개 국어가 가능한 25,000명의 교사와 260,000명의 학생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큰 목표를 세운 멕시코와 브라질

멕시코는 경제, 사회 측면에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지만,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는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리적 인접성을 활용하고자, 멕시코 정부는 작년에 100,000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2018년까지 멕시코의 100,000명의 학생들을 미국으로 보내서 단기 집중 어학연수를 받게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에 따라 미국 정부는 2018년까지 멕시코에 50,000명의 학생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상호 협약은 양국의 언어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브라질 역시 영어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국제 교류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2013년 브라질 교육부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권 국가의 대학원 진학 준비를 돕는 국경 없는 영어(English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시행된 이래로 이 프로그램은 브라질 전역 120개의 국립대에서 수십 만의 학생들을 평가하고 훈련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2014년 하반기 브라질 정부는 국경 없는 영어 프로그램을 국경 없는 언어(Languages Without Borders) 프로그램으로 새로 명명하여 영어 외에도 7개의 외국어를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브라질 학생들이 세계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2014 FIFA 월드컵과 2016 리오 올림픽을 앞두고 브라질 교육부와 관광부는 2012년에 프로나텍 투리스모(Pronatec Turismo)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120개 도시의 150,000 명이 넘는 관광업 종사자들에게 무료로 영어와 스페인어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이들은 54개 부문으로 세분화된 언어 코스 중에 본인의 비즈니스에 필요한 수업을 선택 수강할 수 있습니다. 브라질의 영어 능력 지수는 작년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경쟁력 있는 영어를 구사하는 인력의 수가 눈에 띌 만큼 늘지는 않았습니다.

콜롬비아의 추세를 뒤집기 위한 노력

콜롬비아 또한 영어 교육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2014년, 대통령 후안 마누엘 산토스는 향후 10년 동안 영어 B2 레벨의 대졸자 수를 늘리고, 12,000명의 영어 교사를 양성하고,

40,000명에 달하는 직장인들에게 개인 영어 강습을 지원하는 데 정부 차원에서 6억9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교육 예산이 적고, 영어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지만, 콜롬비아의 영어 능력 지수는 향상될 수 있는 많은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영어 교육을 확대하거나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둔 새로운 정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은 최근 3년 이내에 만들어진 정책들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처음에는 공약으로 나온 것들이었는데, 이는 라틴 아메리카의 학생들과 성인들이 세계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공교육이 강화되기를 바라는 라틴 아메리카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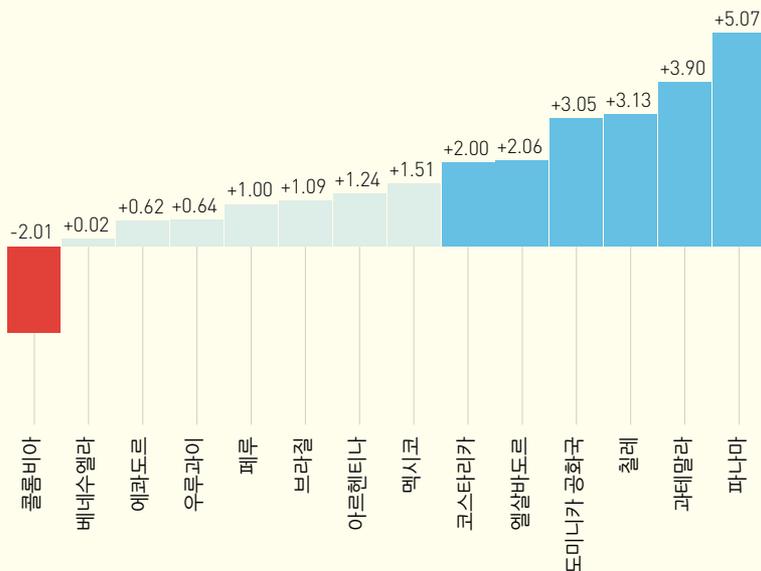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올해 EF EPI에서 라틴 아메리카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도 영어 능력이 많이 향상되었으며, 파나마는 EF EPI 국가 전체 중 가장 큰 향상 정도를 보였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작년의 영어 능력 수준과 비교하여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향상했으며 그중 6개국은 상당히 영어 능력 수준이 상승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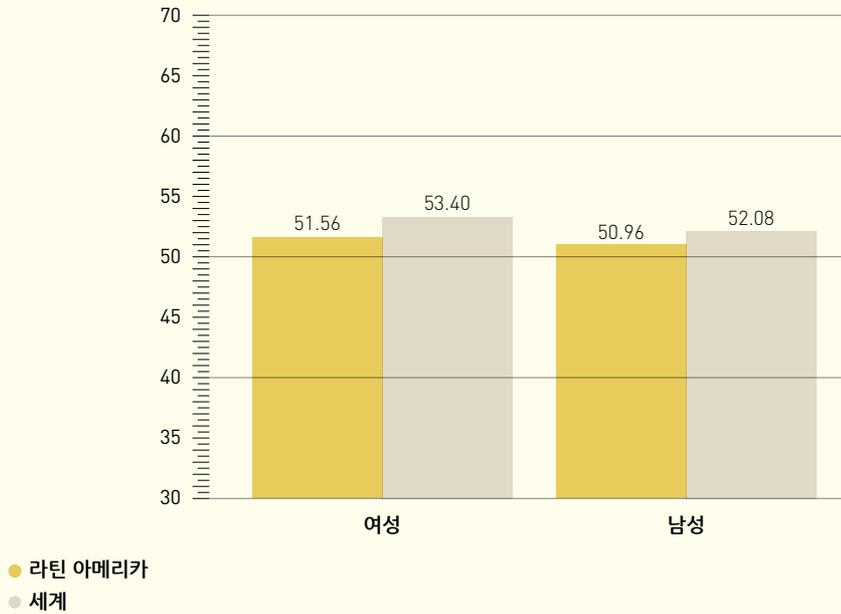


- 하락
- 상승
- 소폭 하락
- 소폭 상승

성별에 따른 차이

라틴 아메리카의 남성과 여성 모두 세계 평균보다 점수가 낮지만 성별 간의 차이는 다른 곳보다 적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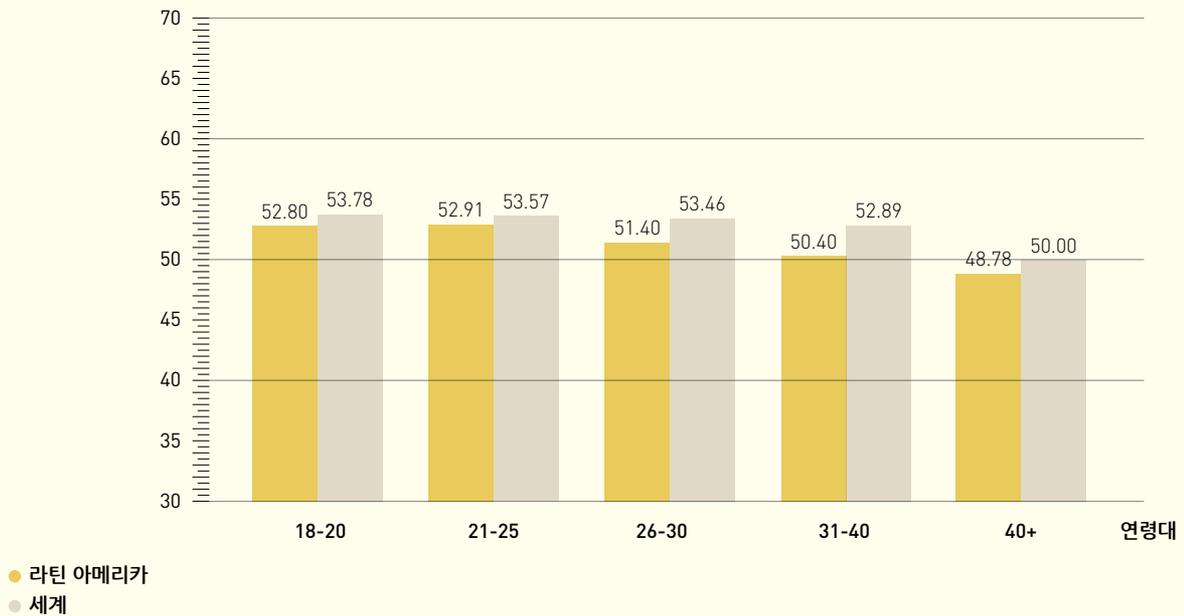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차이

라틴 아메리카의 젊은 성인층(18-25세)의 점수는 같은 연령대의 세계 평균에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직장인(26-40세)은 세계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F EPI 점수



아르헨티나

영어능력 양호
EF EPI 점수: 60.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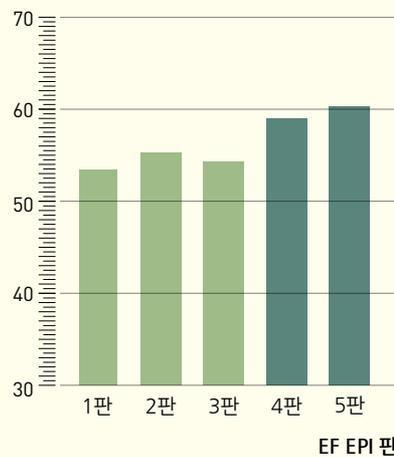


70개국 중 **15위**

아르헨티나 성인의 영어 능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뛰어나며, 유럽 평균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입니다. 지난 8년 간 주목할 만한 성장을 해온 결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문맹률이 가장 낮으며, 세계에서 TOEFL 점수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리는 나라입니다. 아르헨티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다른 국가들보다는 교육 예산이 적지만, 평균 교육 기간은 긴 편에 속합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24 ↗
TOEFL/IELTS 점수	9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9.8
교육 예산	14.7%
1인당 GNI	해당 없음
인구	43,024,374
인터넷 보급률	59.9%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이탈리아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원주민어(마푸둥군어, 케추아어)

EF EPI 점수



도미니카 공화국

영어능력 보통
EF EPI 점수: 56.71



70개국 중 **2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05 ↑
TOEFL/IELTS 점수	82;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7.5
교육 예산	20.6%
1인당 GNI	11,630 달러
인구	10,349,741
인터넷 보급률	45.9%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페루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2.46



70개국 중 **3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00 ↗
TOEFL/IELTS 점수	87;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9.0
교육 예산	15.2%
1인당 GNI	11,160 달러
인구	30,147,935
인터넷 보급률	39.2%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84.1%, 케추아어(공용어) 13%, 아이마라어(공용어) 1.7%

칠레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88

70개국 중 **36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13 ↑
 TOEFL/IELTS 점수	85: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9.8
 교육 예산	19.2%
 1인당 GNI	21,060 달러
 인구	17,363,894
 인터넷 보급률	66.5%
 언어	스페인어 (공용어) 99.5%, 영어 10.2%, 원주민어 (마푸동군어, 아이마라어, 케추아어, 라파누이어 포함) 1%, 기타 2.3%

에콰도르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67

70개국 중 **3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62 ↘
 TOEFL/IELTS 점수	80: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7.6
 교육 예산	10.3%
 1인당 GNI	10,720 달러
 인구	15,654,411
 인터넷 보급률	40.4%
 언어	스페인어(카스티야) (공용어) 93%, 케추아어 4.1%, 외국어 2.2%

멕시코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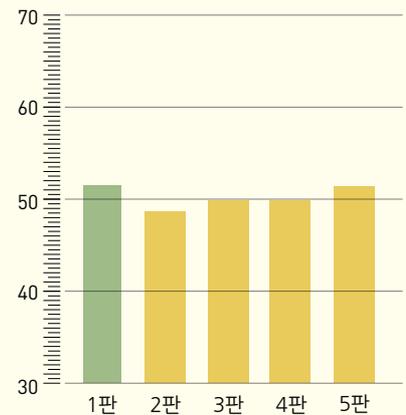
70개국 중 **40위**



멕시코의 영어 능력은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평균에 속하지만, 세계 전체로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미국과의 지리적 인접성과 높은 이민 인구 비율을 생각하면 놀라운 결과입니다. 공공 관련 예산 중 교육에 책정되는 예산의 비율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에서는 최상위권입니다. 그러나 멕시코는 교사직을 사고 팔거나 세습하는 문제로 인해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어 교사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 멕시코 정부는 대규모 교육 체제 개편안을 시행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51 ↘
 TOEFL/IELTS 점수	86: 6.1
 평균 교육 기간	8.5
 교육 예산	19.6%
 1인당 GNI	16,020 달러
 인구	120,286,655
 인터넷 보급률	43.5%
 언어	순수 스페인어 92.7%, 스페인어와 원주민어 5.7%

EF EPI 점수



EF EPI 판

브라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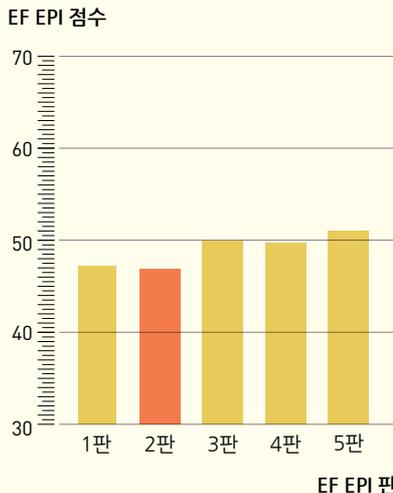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1.05

70개국 중 **41위**

최근 몇 년간 대규모의 교육 체제 개혁과 영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브라질의 영어 능력 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브라질은 2014 FIFA 월드컵과 2016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삼아 영어 학습에 대한 열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새롭게 설립된 많은 대형 영어 학교들과 광범위한 온라인 영어 플랫폼들이 그 증거입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브라질은 다른 대형 국가들이 노동력을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09 ↗
TOEFL/IELTS 점수	83; 6.5
평균 교육 기간	7.2
교육 예산	14.6%
1인당 GNI	14,750 달러
인구	202,656,788
인터넷 보급률	51.6%
언어	포르투갈어(공용어이자 가장 널리 쓰이는 언어)



코스타리카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0.53

70개국 중 **43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00 ↑
TOEFL/IELTS 점수	9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8.4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13,570 달러
인구	4,755,234
인터넷 보급률	46.0%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영어

우루과이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0.25

70개국 중 **44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64 ↗
TOEFL/IELTS 점수	9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8.5
교육 예산	14.9%
1인당 GNI	18,940 달러
인구	3,332,972
인터넷 보급률	58.1%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포르투갈어, 브라질레로어(브라질 국경에서 쓰이는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의 혼합)

과테말라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49.67

70개국 중 **46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3.90↑
 TOEFL/IELTS 점수	82;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5.6
 교육 예산	20.6%
 1인당 GNI	7,130 달러
 인구	14,647,083
 인터넷 보급률	19.7%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60%, 아메리카 원주민 언어 40%

파나마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48.77

70개국 중 **4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5.07↑
 TOEFL/IELTS 점수	84;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9.4
 교육 예산	13.0%
 1인당 GNI	19,300 달러
 인구	3,608,431
 인터넷 보급률	42.9%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원주민어 (응가베어, 부글레어, 쿠나어, 엠베라어, 우나안어, 나소어, 브리브리어 포함)

콜롬비아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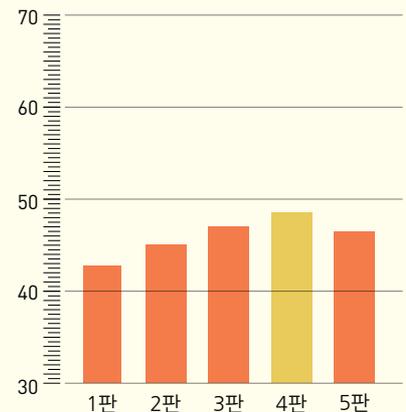
70개국 중 **57위**



콜롬비아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는 하위 등급에 속하며, 특히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의 점수가 해당 연령대의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대다수의 콜롬비아 학교의 영어 교사들은 자격 미달인 경우가 많습니다. 영어 교사의 75%가 영어 B1 레벨이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콜롬비아는 심한 빈부 격차와 불안정한 경제 상황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있어서 영어 사교육은 생각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01 ↓
 TOEFL/IELTS 점수	81; 5.8
 평균 교육 기간	7.1
 교육 예산	16.9%
 1인당 GNI	11,960 달러
 인구	46,245,297
 인터넷 보급률	51.7%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EF EPI 점수



EF EPI 판

베네수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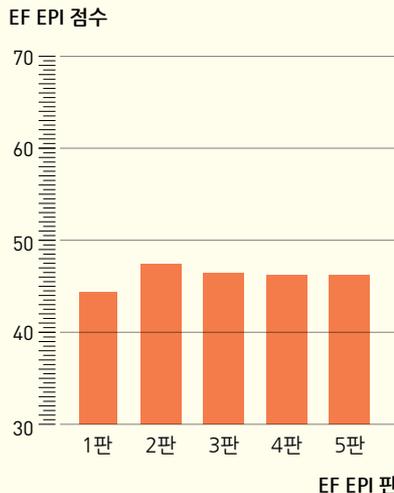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14



70개국 중 **59위**

베네수엘라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는 거의 변함없이 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의무 교육과정이 있지만, 빈곤층과 사회 계층 차이로 인해 인구의 상당수가 교육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교육 예산 비중은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 가장 높으며, 세계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하나, 교육적 성과는 미미합니다. 라틴 아메리카 내에서는 인터넷 보급률 또한 상위권이기에 온라인 학습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02 ↗
TOEFL/IELTS 점수	8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8.6
교육 예산	20.7%
1인당 GNI	17,900 달러
인구	28,868,486
인터넷 보급률	54.9%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다양한 원주민어



엘살바도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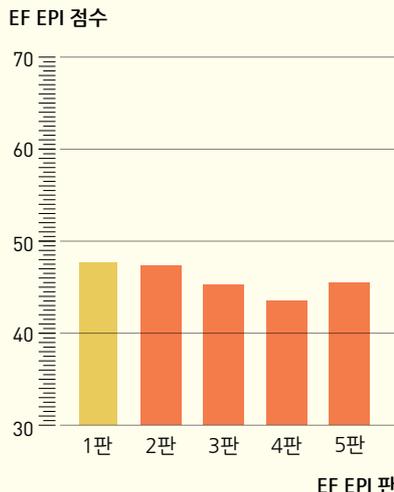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5.52



70개국 중 **61위**

높은 범죄율과 빈곤율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기본적인 읽기, 산술 능력, 언어 능력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기술들을 습득하지 못합니다. 외국의 원조로 교육의 격차를 보완하고는 있지만, 아직 턱 없이 부족합니다. 엘살바도르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은 4명 중 1명이 채 안 되며, 1인당 GNI는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06 ↑
TOEFL/IELTS 점수	85;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6.5
교육 예산	15.9%
1인당 GNI	7,490 달러
인구	6,125,512
인터넷 보급률	23.1%
언어	스페인어(공용어), 나우아어(아메리카 원주민 사용)





상파울로

최근 몇 년간 라틴 아메리카의 정책 입안자와 경제학자는 경제 성장을 위해 교육 체제 개편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EF EPI 평균: 44.85
인구: 371,362,139
1인당 GNI: 17,132 달러



영어능력지수 등급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영어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MENA

중동 및 북아프리카(MENA)는 세계에서 영어 능력 수준이 가장 낮고 평균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확대하고, 여학생 수를 늘리고, 지방과의 교육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였지만, MENA 지역의 학교 체계는 영어 교육에 있어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MENA

MENA 지역의 국가 대부분은 발전 정도가 비슷한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 학생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만큼의 결과는 얻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MENA 지역에서 요르단, 카타르, 튀니지, 아랍 에미리트 4개국이 2012 OECD PISA 시험에 참여했는데, 수학과 과학, 독해 부분에서 OECD는 평균치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이중 3개 나라는 교육 시스템 평가 최하위 6개국에 포함되었습니다. MENA 지역의 여성과 남성 모두 세계 평균보다 훨씬 뒤처져 있으며 세계 다른 지역보다 성별 간 차이가 확연히 큼니다.

영어 능력이 정체된 아랍 에미리트

아랍 에미리트는 전 세계적으로는 영어 능력 지수가 낮은 편이지만, MENA 지역 안에서 봤을 때는 양호한 수준입니다. 아랍 에미리트는 다국적 사회이고 무역 의존성이 강한 경제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영어가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아랍 에미리트의 영어 능력 수준을 평가할 때는 반드시 9백만이 넘는 아랍 에미리트 거주자 중 에미리트 국민은 채 20%가 안 됨을 고려해야 합니다. EF EPI는 응시자를 출신 국가가 아니라 실제 거주 국가에 따라서 분류합니다. 성인 인구의 영어 수준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방법이지만 아랍 에미리트의 경우 응시자가 보통 해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자료로 아랍 에미리트의 교육 시스템을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처럼 아랍 에미리트도 각기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사이에 영어가 공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아랍 에미리트만의 공식 국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영어가 사회 곳곳에서 통용되는데 불구하고 영어 능력 지수가 이렇게 낮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언어에 빈번하게 노출되고 사용하는 일이 잦아지면 실력이 향상되기 마련이지만, 아랍 에미리트의 경우는 영어 능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영어를 적극 도입한 마그레브

마그레브의 국가들은 역사적으로 무역, 식민 지배, 이민 등으로 프랑스와 관계가

깊습니다. 최근 이 국가들 사이에서 노동 인구를 현대화하고 유럽으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고 보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 수준은 여전히 굉장히 낮지만 능력 향상을 위한 시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알제리 정부는 영국 문화원과 협력하여 3년에 걸쳐 SEEDS라 불리는 교사 양성 프로젝트를 시행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조사관과 교육 전문 인력을 동원하여 직접 대면 또는 온라인을 통한 영어 교육을 전국의 32,000명의 중학교 교사에게 실시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최근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서 다른 과목에 비해 낮은 영어 점수의 평균을 올리는 것입니다.

서양 문화와 영어의 분리

사우디 아라비아나 예멘과 같이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국가는 서양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영어도 배척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지만,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어가 국제적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어를 도구로 보는 시각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는 영어를 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영어는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교육되는 유일한 외국어이며, 많은 대학 수준의 교육과정에서 언어 도구로서의 영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와 연관된 영어 교육 자료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MENA 지역의 다른 많은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우디 아라비아의 교육 체계는 시험 대비를 위한 단순 암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비효율적인 교육 방식은 사우디 아라비아 대학을 진학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 전에 추가적으로 영어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합니다. 사우디 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에서 영어를 공식 언어로 채택하고 있으며, 그 외의 많은 직업군에서도 영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이렇게 영어 능력의 수요가 많은 상황이지만, 현대화되고 영어가 가능한 인재를 양성하기 이전에 교육 시스템의 대대적인 개혁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는 고용 체계

MENA에서 효과적인 교육 개혁이 어려운 주된 이유 중 하나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 문제입니다. 대다수 국가에서 정규직의 절반 가량이 공공기관에 고용되어 있는데,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정부와 결탁한 기업은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법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또한 에너지 사용 보조금을 받고, 외국 기업은 무역 장벽으로 막는 등 이 모든 상황들이 사기업의 성장을 막고 있습니다. MENA 지역의 대부분의 고용형태는 비정규직이며, 생산가능인구의 단 19%만이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MENA 지역의 청년 실업률은 매우 높습니다. 심지어 대졸자도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유럽이나 다른 국가로 합법적인 이민을 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수의 대졸 청년들은 백수로 지내거나, 해외에서 불안정하게 사는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노동 시장의 이러한 비효율성은 교육 개혁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개혁으로 인해 즉각적으로 경제가 성장한다거나, 고용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년들에게 학업적 성취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결론

MENA 지역은 전체적으로 교육 체계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핵심적인 일이지만, 영어를 비롯한 여러 영역에서 교육적 목적과 경제적 이익을 함께 연결시키기에는 부족할 것입니다. 특히 민간 기업을 육성하려면 기술의 발달과 경제 구조의 개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중동 및 북아프리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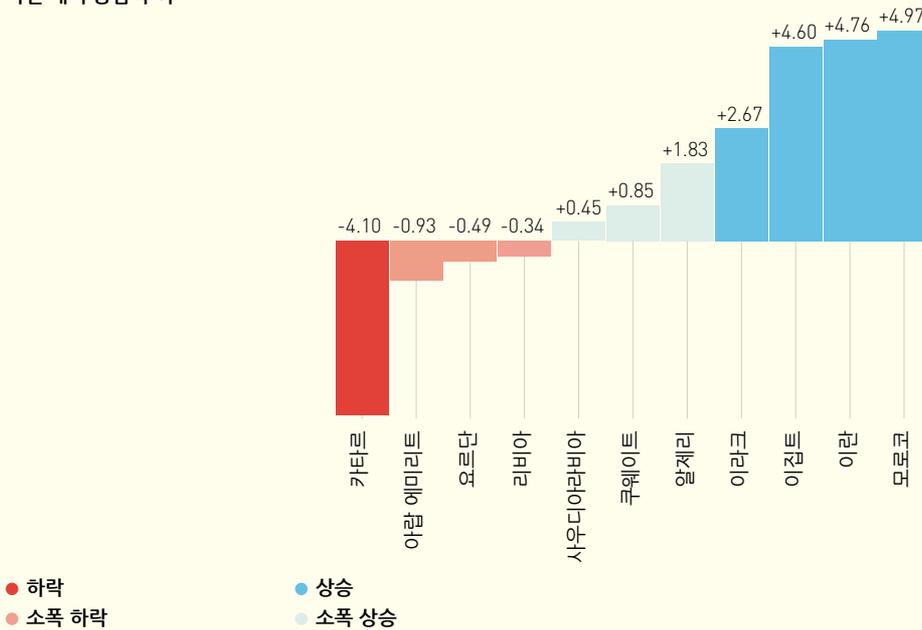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부족

EF EPI 추세

MENA 지역의 성적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폭으로 변동했습니다. 거의 5점 가까이 상승한 나라도, 하락한 나라도 있었습니다. 4개의 국가가 상당한 진전을 보였음에도, 아랍 에미리트를 제외한 MENA 국가들의 영어 능력 지수는 여전히 최하위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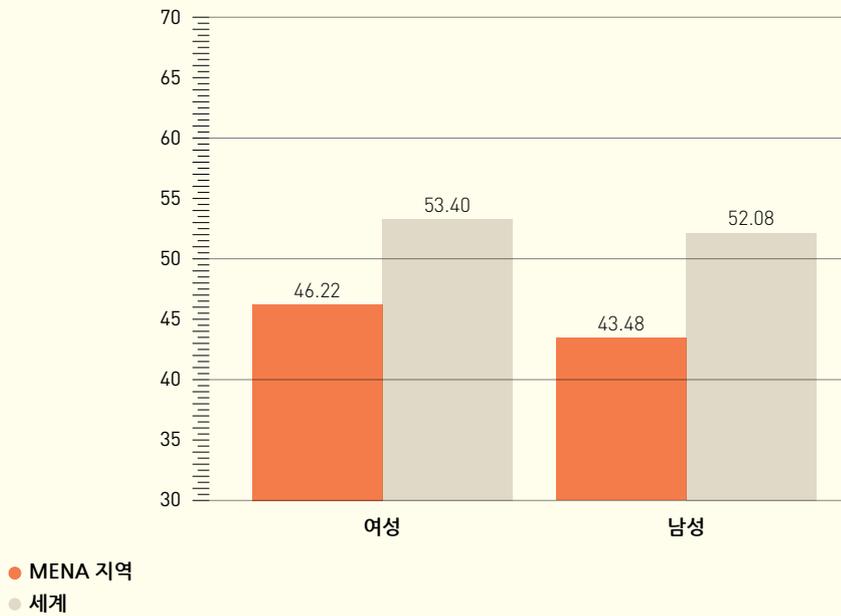
작년 대비 증감 추이



성별에 따른 차이

MENA 지역의 여성과 남성 모두 세계 평균보다 상당히 뒤쳐져 있으며, 남성에 비해 여성의 영어 능력이 유달리 큰 폭으로 우수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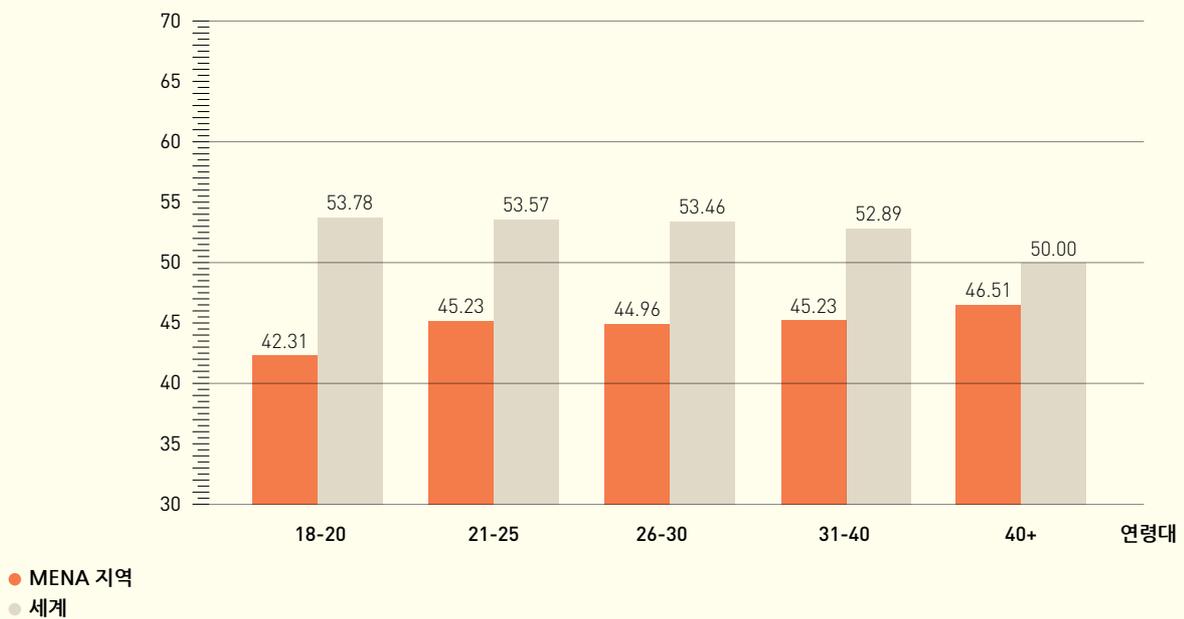
EF EPI 점수



세대 간 차이

MENA 지역에서는 40세 이상의 성인이 영어 능력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것은 젊은 성인층과 경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직장인층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이는 세계적인 추세와 다른 점입니다.

EF EPI 점수



아랍 에미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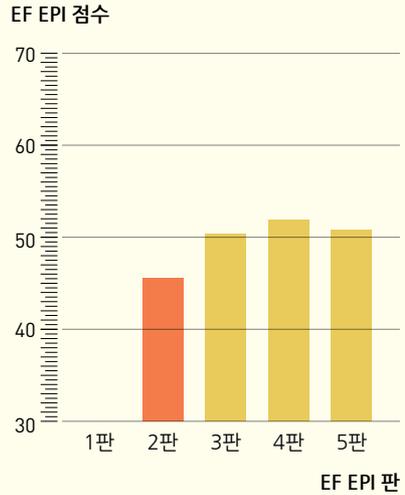
영어능력 미흡
EF EPI 점수: 50.87



70개국 중 **42위**

아랍 에미리트의 성인은 MENA 지역 내에서 가장 영어 능력이 뛰어나지만 다른 지역의 상위권 국가의 성인과 비교하면 미흡한 편입니다. 아랍어가 국가 공용어이지만, 실제 비즈니스 의사소통에서는 영어가 통용됩니다. 아랍 에미리트의 노동 인구에서 아랍 에미리트 국민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외국인이 거의 80% 이상의 인구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영어가 필수 요건인 아랍 에미리트의 국제적 업무 환경 속에서 성인의 영어 능력 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93 ↓
TOEFL/IELTS 점수	76; 4.4
평균 교육 기간	9.1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59,890 달러
인구	5,628,805
인터넷 보급률	88.0%
언어	아랍어(공용어), 페르시아어, 영어, 힌디어, 우르두어



예멘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60



70개국 중 **51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70;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2.5
교육 예산	12.5%
1인당 GNI	3,820 달러
인구	26,052,966
인터넷 보급률	20.0%
언어	공용어 (공용어)

모로코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40



70개국 중 **52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97 ↑
TOEFL/IELTS 점수	79;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4.4
교육 예산	18.3%
1인당 GNI	7,000 달러
인구	32,987,206
인터넷 보급률	56.0%
언어	아랍어(공용어), 베르베르어파(타마지트어(공용어), 타셀히트어, 타리피트어), 프랑스어(사업, 정부, 외교 등에 사용)

요르단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7.33

70개국 중 **53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49 ↓
 TOEFL/IELTS 점수	78: 6.1
 평균 교육 기간	9.9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11,660 달러
 인구	7,930,491
 인터넷 보급률	44.2%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중상위 계층 간에는 잘 통함)

이집트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73

70개국 중 **5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60 ↑
 TOEFL/IELTS 점수	83: 6.2
 평균 교육 기간	6.4
 교육 예산	9.9%
 1인당 GNI	10,790 달러
 인구	86,895,099
 인터넷 보급률	49.6%
 언어	아랍어(공용어), 교육을 받은 계층 간에는 영어와 프랑스어

이란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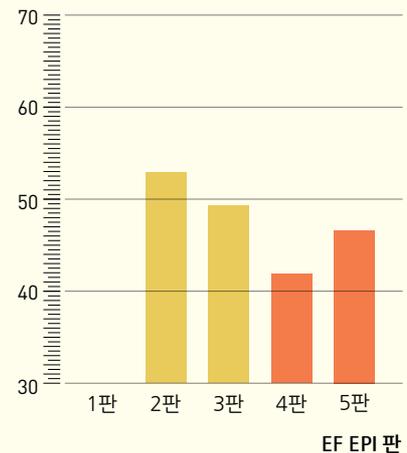
70개국 중 **56위**



이란의 EF EPI 점수는 작년보다 거의 5점이나 올랐지만 지난 6년간의 추세를 보면 긍정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이란의 교육 부문 공공 예산은 MENA 지역 평균을 웃돌지만, 중동의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평균 교육기간이 짧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어를 배우게 됩니다. 국립 영어 교육기관은 수준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으며, 학생들은 보다 학습자 중심으로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76 ↑
 TOEFL/IELTS 점수	82: 6.2
 평균 교육 기간	7.8
 교육 예산	17.0%
 1인당 GNI	15,610 달러
 인구	80,840,713
 인터넷 보급률	31.4%
 언어	페르시아어(공용어) 53%, 아제리 터키어와 터키 방언 18%, 쿠르드어 10%, 길라키어와 마잔다란어 7%, 루리어 6%, 발루치어 2%, 아랍어 2%, 기타 2%

EF EPI 점수



오만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6.34

70개국 중 **5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해당 없음
TOEFL/IELTS 점수	65: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6.8
교육 예산	10.9%
1인당 GNI	52,780 달러
인구	3,219,775
인터넷 보급률	66.5%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발루치어, 우르두어, 인도 방언

카타르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3.72

70개국 중 **63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4.10 ↓
TOEFL/IELTS 점수	77: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9.1
교육 예산	7.4%
1인당 GNI	128,530 달러
인구	2,123,160
인터넷 보급률	85.3%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가 제2 언어로 흔히 사용됨

쿠웨이트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2.65

70개국 중 **65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85 ↗
TOEFL/IELTS 점수	72: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7.2
교육 예산	13.4%
1인당 GNI	84,800 달러
인구	2,742,711
인터넷 보급률	75.5%
언어	아랍어(공용어), 영어

이라크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0.69

70개국 중 **66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2.67 ↑
TOEFL/IELTS 점수	65: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5.6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14,930 달러
인구	32,585,692
인터넷 보급률	9.2%
언어	아랍어 (공용어), 투르크멘어(터키 방언), 아시리아어는 사용자(신 아람인)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에서는 공용어로 채택, 아르메니아어

알제리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40.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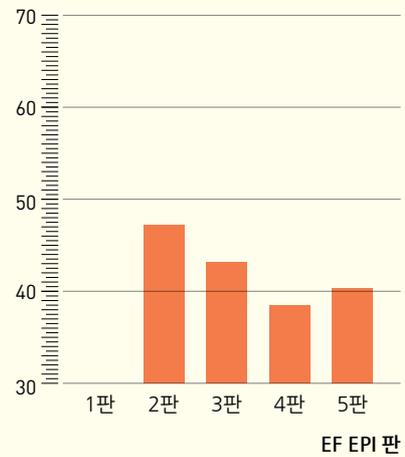


70개국 중 **67위**

알제리의 영어 능력 지수는 매우 낮으며,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제리 성인의 영어 능력은 조사한 국가 중 최하위권에 속합니다. 사업과 과학 부문에서는 영어가 주로 사용되지만 그 외의 분야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알제리는 다양한 언어를 혼용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영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아랍어가 국어이자 공용어이며, 프랑스어는 일부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고, 몇몇 베르베르 방언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증감 추이	+1.83%
 TOEFL/IELTS 점수	7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7.6
 교육 예산	11.4%
 1인당 GNI	13,070 달러
 인구	38,813,722
 인터넷 보급률	16.5%
 언어	아랍어(공용어), 프랑스어(공통어), 베르베르어파: 카빌리 베르베르 (타마지트어), 사위아 베르베르 (타차위트어), 음자브 베르베르, 투아레그 베르베르(타마하크어)

EF EPI 점수



사우디아라비아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39.93



70개국 중 **68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45%
 TOEFL/IELTS 점수	61: 4.3
 평균 교육 기간	8.7
 교육 예산	17.7%
 1인당 GNI	53,640 달러
 인구	27,345,986
 인터넷 보급률	60.5%
 언어	아랍어(공용어)

리비아

영어능력 부족
EF EPI 점수: 37.86



70개국 중 **70위**

 작년 대비 증감 추이	-0.34%
 TOEFL/IELTS 점수	73: 해당 없음
 평균 교육 기간	7.5
 교육 예산	해당 없음
 1인당 GNI	28,080 달러
 인구	6,244,174
 인터넷 보급률	16.5%
 언어	아랍어(공용어), 이탈리아어, 영어, 베르베르어(나푸시, 가다메스, 수크 나, 아질라, 타마셰크)

영어, 경제, 그리고 삶의 질

영어는 처음엔 대영 제국 세력 아래에서 국제 무역과 외교용 언어로서, 전후에는 미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면서 영향을 펼쳤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국가에서 영어가 프랑스어 대신 고등 교육을 받은 상류층의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간 세계화, 도시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영어의 역할은 급격하게 변화해왔습니다.

오늘날 영어 능력은 상류층이나 경제적 이득과는 관련이 약해졌으며 미국이나 영국과의 관련성도 예전만큼 크지 않습니다. 대신에 영어는 전 세계 노동 인구의 기본적인 역량이 되었습니다. 지난 2세기에 걸쳐 영어를 읽고 쓰는 능력이 상류층의 특권에서 교양있는 시민의 기본적 소양으로 변화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영어로 인해 지금이 어느 때보다도 국제적 비즈니스가 용이한 시대입니다.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의 **기업 환경 평가(Ease of Doing Business Index)** (표 A) 는 세계 여러 국가의 경제 규제 현황과 새로운 사업의 시작 및 경영의 용이성을 순위로 매긴 내용입니다. 평가 지표는 사업 시작의 용이성, 국제 무역, 계약 집행, 그리고 파산 처리법 등 10개 항목입니다. 영어가 공용어가 아닌 국가에서는, 영어 능력의 정도와 사업 전개 용이성 간에 밀접한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기업 내 언어로 채택하는 회사(혼다, 노키아, 라쿠텐, 르노, 삼성 등)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기업 성장을 도모하려는 국가나 기업이 명심해야 할 것은, 영어 능력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데 핵심 요소라는 것입니다. 영어는 기회 창출, 취업 경쟁력 향상, 사업 영역의 확장에 기여합니다. 이와 같이 영어는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열쇠입니다.

영어와 1인당 GNI(표 B)는 정비례하는 상관관계로 선순환을 보여줍니다. 영어 능력이 향상될수록 소득 수준이 올라가며, 이것은 정부나 개인으로 하여금 영어 교육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많은 국가들에서 높은 영어 능력 지수는 곧 **실업 상태이거나 교육에서 소외된 청년들의 수가 적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표 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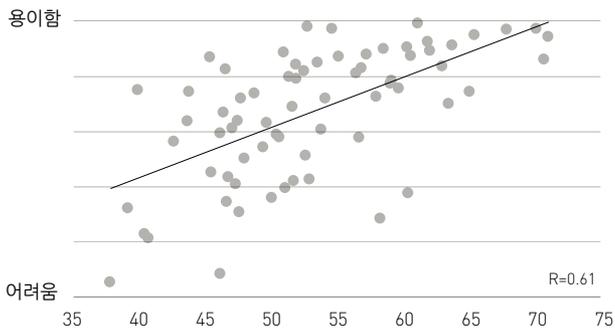
삶의 질을 보여주는 **인간 개발 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표 D) 역시 EF EPI와 정비례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인간 개발 지수의 평가 지표는 교육적 성과, 예상 수명, 문맹 지수, 생활 수준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영어 능력 지수가 보통이거나 미흡한 국가 중에 좋은 평가를 받은 나라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영어 능력 지수가 양호하거나 우수한 국가들은 인간 개발 지수가 "매우 높음" 평가를 받았습니다.

영어 의사소통 능력은 사립학교나 해외 유학을 통해서만 제대로 배울 수 있는 사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곤 합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들은 영어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데 핵심 역량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모국어 독해나 수학 실력과 동등한 수준으로 교육하고 평가하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영어의 중요성이 점점 커진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할 때는 높은 수준의 언어 능력이 보다 더 강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표 A: 영어와 사업 용이성

사업 용이성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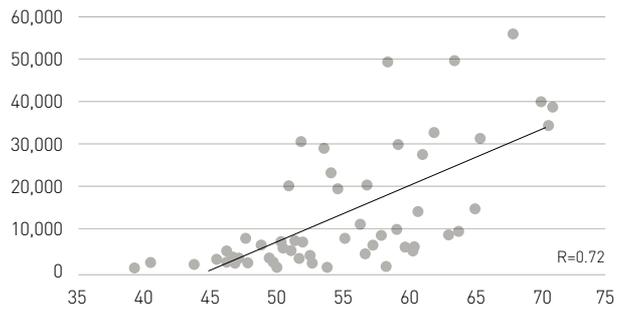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4

표 B: 영어와 소득

조정된 1인당 순국민소득 (현 달러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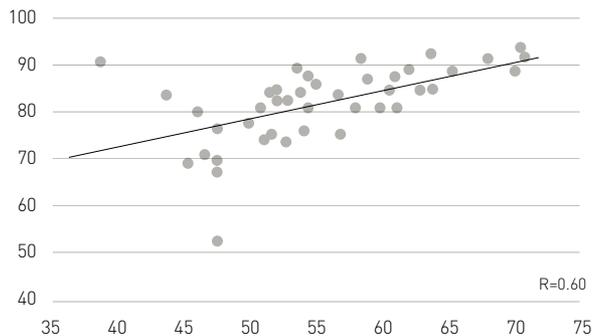


EF EPI 점수

출처: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 2014

표 C: 영어와 청년층 교육 및 고용 상태

청년층의 교육 및 고용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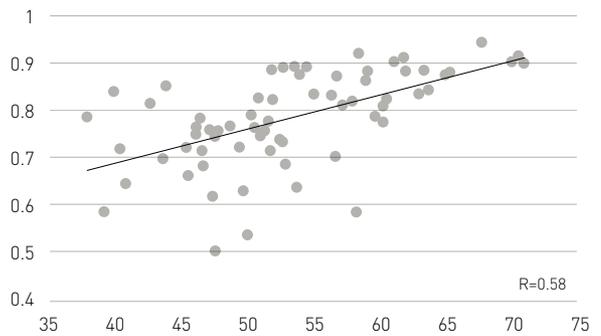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2

표 D: 영어와 삶의 질

인간 개발 지수 (HDI)



EF EPI 점수

출처: 유엔 인간 개발 보고서, 2014

영어와 혁신

다국적 기업에서 흔히 직면하게 되는 과제 중 하나는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인재 간에 화합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영어는 국가와 문화를 뛰어넘어 혁신을 위해 직원들을 연결하는 교두보 역할을 합니다.

정보기술 산업은 국제적 의사소통에 의존하는 산업입니다. 2014년 전기전자기술자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세계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10개는 모두 영어 기반 언어였습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개발자가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Python 과 Ruby 뿐입니다. 영어 능력이 뛰어난 국가는 연구 개발 비중이 높은 항공우주 산업, 제약, 과학 기기, 전자기계 분야의 **첨단 기술 전문가** (표 E) 양성에도 뛰어납니다.

영어는 과학과 공학에서도 중요한 요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뛰어난 국가는 1인당 **연구개발에 중사하는 연구자와** (표 F) **기술자의 숫자가 더 높으며** (표 G) **연구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도 더 큼니다** (표 H). 연구 사례, 국제 연구 회의 참여 및 논문 발표, 다국적 연구 팀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는 것도 영어 실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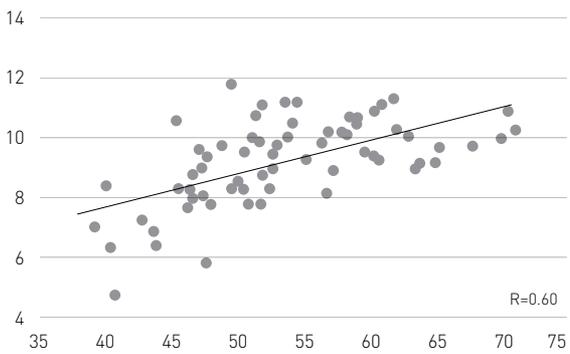
미국 연구자들은 매년 가장 많은 과학 논문을 발표합니다. 영국은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합니다. 중국의 논문 발표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이지만, 미국과 영국의 해외 논문 인용 비율인 30%와 8%에 비하면 중국은 4%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중국의 연구는 세계적 지식 경제에 잘 융화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영어 실력이 낮은 국가는 국제 공동 연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중국에서 발표된 과학 논문 중 15%만이 국제 공동 연구자를 언급한 반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의 경우 반 이상의 논문에서 국제 공동 연구자를 언급했습니다. 영어 능력이 낮은 국가에서는 국제 연구 논문 활용 능력과 국제적 혁신의 기여도가 낮기 때문에, 이는 해당 국가의 당면 과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표 E: 영어와 첨단 기술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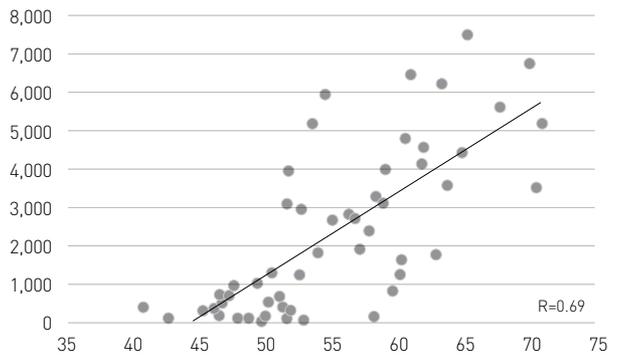
첨단 기술 수출 (로그 스케일)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3

표 F: 영어와 연구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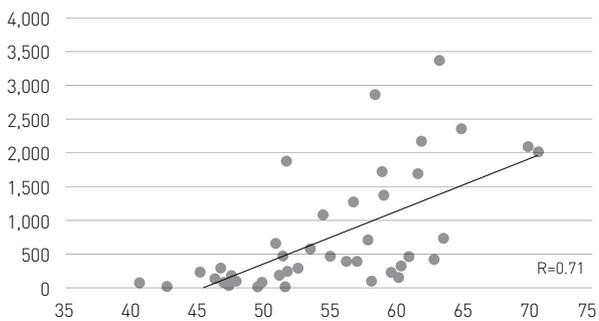
백만 명당 연구개발에 중사하는 연구자 수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2

표 G: 영어와 기술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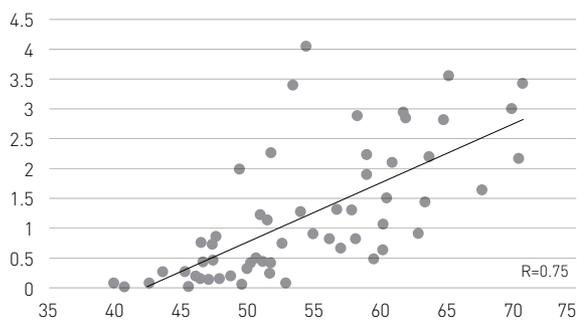
백만 명 중 연구개발 기술자 수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2

표 H: 영어와 혁신 투자비

연구개발비 (GDP중 비율)



EF EPI 점수
출처: 세계은행, 2012

영어 그리고 연결성

기술 발전으로 인해 학생들은 영어를 더 효율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어 능력 수준이 높은 국가는 인터넷 보급률 또한 높습니다. 영어 능력은 국가의 **인터넷 사용자 수 (표 I)**와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집과 학교에서 인터넷 접속이 가능하게 되어 여러 국가에서 자기 주도 학습, 대규모 온라인 공개 강좌(MOOC), 교실 통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어 수업에서 기술이 활용될 방법은 아직도 무궁무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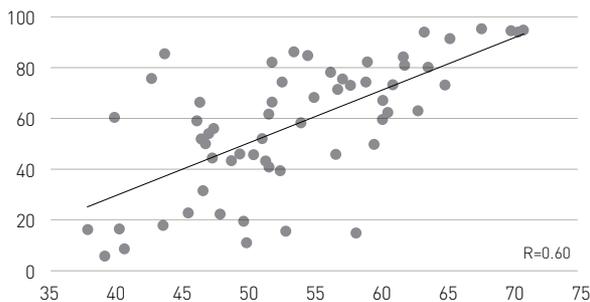
온라인 영어 학습은 자기 강화 효과가 있습니다. 영어 능력이 더 나아질수록 온라인 학습 시스템과 자료를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인해 영어 능력이 향상됩니다. 온라인 콘텐츠의 56%가량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능력 수준이 낮은 국가라면,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통해 개개인이 원하는 시간에, 개개인의 능력에 맞춘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협회(The Groupe Spéciale Mobile Association)와 모질라

재단은 2017년까지 개발도상국의 모바일 광대역 인터넷 사용자가 30억으로 늘어날 것이며, 그중 반은 스마트폰 사용자일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기술로 인해 수십억 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명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연구자, 기업가, 학자, 그리고 창의적인 사람들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해낼 것입니다.

모국어가 다른 사람들이 만나면 보통 영어로 대화하게 되는데, 인터넷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전 세계에서 함께 사용이 가능한 인터넷과 영어의 조합은 아이디어와 혁신을 전 세계로 퍼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표 I: 영어와 인터넷 보급률

1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출처: 세계은행, 2013





결론

해를 거듭할수록 교육 체계와 기관, 그리고 기업들 사이에서 영어를 공통어로 사용하려는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자국어만 소통하던 산업이나 직업들이 현재는 영어 소통 능력을 필수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어 사용 비중이 높아지면서 언어 확장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영어 능력이 비슷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번 EF EPI 제5판에서는 영어 능통자에 대한 인력 수요가 꾸준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성인의 영어 능력이 크게 성장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영어 실력은 신발이나 컴퓨터 칩 같은 소모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이 늘어나듯 실력도 향상이 된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는 건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듭니다. 성인의 경우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 편한 언어를 사용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또한 성인 영어 능력은 대부분 공교육 체계에 따라 결정되는데, 공교육은 빠르게 변화하는 편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관성과 정체성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몇몇 국가에서는 오히려 우수한 성인 영어 능력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영어 능력이 높은 국가의 공통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어를 다른 외국어와 구분.** 경제 및 교육 체계에 있어서 영어의 중요성을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으며, 공공 및 개인에게도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영어와 다른 언어와의 중요도에 대한 차별의 시선도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 **처음 가르킬 때부터 실용적인 영어 대화 능력에 집중.** 효과적인 영어 교육은 유창함, 말하기와 듣기를 강조합니다. 초보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많은 영어 교육 방법들이 더 이상 영어의 역량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소통 대신 암기를 강조하는 교수 방법은 구시대적입니다.
- **의사소통 중심의 영어 교육을 위한 교사 훈련.** 잘 기획되고 시행되지만 한다면, 영어 교사 양성 및 교사 능력 개발을 위한 투자는 아주 현명한 일입니다. 한 명의 선생님이 수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효과적인 영어 평가도구 개발.** 언어를 배우는 사람의 상황, 목표, 목적에 따라 평가 방식도 달라야 합니다. 중요도가 높은 시험을 개편하는 것은 특히나 신중해야 합니다. 이는 시험과 관련된 교육 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기업 및 개인 성인 학습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무료 교육 시스템 처럼 무료 평가 프로그램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 **성인의 업무상 혹은 개인적인 훈련 지원.** 많은 경우, 성인들은 회사에서 영어로 대화 해야할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문에 영어 능력 향상에 대한 동기 부여의 기회도 많고 학습을 위한 투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영어 교육에 관한 논의에서 성인 영어 교육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 **기술과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에 투자.** 성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조금 다른 학습 방법이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공개강좌, 단계별 온라인 개인 학습, 휴일 집중 강좌 등은 직장인들로 하여금 개인의 시간을 활용하여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전반적인 교육 체계의 개혁과 동반한 영어 교육 개혁.** 낮은 학력 수준과 교육 불평등의 문제를 가진 나라들에서는 모든 학생들에게 영어 교육을 포함해서 적어도 10년의 수준 있는 공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성인의 영어 능력은 자연히 향상될 것입니다.
- 교육 체계를 바꾸는 것은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라, 지역, 회사 모두 영어를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도, 적어도 향후 몇 십년 간은 영어는 계속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입니다. 세계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조사한 본 리포트가 세계 곳곳에서 영어 능력 향상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F EPI 에 관하여

방식

EF 영어 능력 평가 지수(The EF English Proficiency Index)는 언론인, 교육자, 국회 의원, 기업인들에게 신뢰받는 자료로서, 자료의 인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EF 는 세계의 영어 교육에 관한 계속되는 논의에 기여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EF EPI 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면 먼저 그 방법론을 이해해야 합니다. EF EPI는 매년 세계 각국의 수십만 명 이상의 성인들이 참여한 전년도 영어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번 제5판의 자료는 2014년에 두 개의 서로 다른 EF 영어 시험에 응시한 91만 명의 시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시험에 대하여

두 개의 시험 중 하나는 인터넷 사용자라면 누구나 무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EF 과정 등록시 온라인에서 보는 레벨테스트입니다. 두 시험 모두 문법, 단어, 읽기, 듣기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첫 번째 시험의 경우 난이도가 자동으로 조정되는 30개의 질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응시자가 질문을 맞췄는지 틀렸는지에 따라 그다음에 나오는 질문의 난이도가 조정됩니다. 이 시험의 일관된 점수 산정 방법은 26,000명이 여러가지 다른 버전의 시험을 응시한 결과를 분석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난이도 조정 기능이 없는 두 번째 시험은 총 70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점수는 EF 강좌 레벨과 일치하며, 두 시험 모두 컴퓨터를 통해 응시하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관리됩니다.

응시자

비록 응시자들의 대다수가 영어 공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 치중되어 있지만, EF EPI는 균형있는 성비와 다양한 연령대의 성인들의 영어 능력 지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성 응답자는 전체 표본의 49.7%를 차지했으며 성인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28세였습니다. 성인 응답자 중 98.5%는 60세 미만이었습니다. 남성 응답자가 나이가 더 많은 경향을 보였는데, 여성 응답자들의 평균 나이보다 2 세가량 더 높습니다. 응답자는 영어 학습에 관심이 있어 시험에 응시하기 때문에 표본은 대부분 생산 가능 연령의 성인이며, 그중에서도 학생과 경력 초기의 사람이 많습니다.

지수에 포함되는 기준은 국가 내 응시자 수 최소 400명 이상인데, 대부분의 경우 400 명을 거뜰히 넘는 참여율을 보였습니다. 2 가지 시험 중 하나라도 응시자 수가 100명 이하인 국가는 총 응시자 수와 상관없이 지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총 70개국만 포함되었습니다.

본 지수의 시험 응시자는 자신이 선택하여 시험에 응시했으므로 국가 전체를 대표한다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어 하거나 자신의 영어 실력이 궁금한 사람만 시험에 응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전체 인구보다 영어 실력이 떨어지거나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 결과가 자격증이나 프로그램 수강 허가와 상관이 없으므로 응시자가 부정행위나 벼락치기를 통해 일부러 성적을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실제적인 영어 실력 현황을 파악하는 데 더 유리합니다.

시험은 무료로 온라인을 통해 제공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누구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응시자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학업을 마친 지 얼마 안 된 젊은 성인입니다. 인터넷 접속이 불가능하거나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자동으로 제외되었습니다. 그 영향은 인터넷 사용률이 낮은 국가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표본 편차로 인해 빈곤하고 교육을 덜 받은 소외 계층이 제외됨으로써 점수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무료 온라인 시험은 전 세계 노동인구의 영어 능력 수준에 대한 대규모 자료를 수집하는 데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점수 산정

EF EPI 점수 산정을 위해 각 시험의 전체 문항 수에 따라 시험 점수를 표준화하여 백분율결정하는 데 산출했습니다. 모든 점수는 2 가지 시험의 평균으로 산정하여 각 시험에 동등한 가중치를 부여했습니다. 지역 및 세계 평균은 각 지역에 있는 국가의 인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본 시험 점수에 따라 국가별 영어 등급이 부여되었습니다. 이 등급을 통해 영어 실력이 비슷한 국가들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대륙 내의 국가 및 대륙 간의 등급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본 등급은 유럽 언어 공통 기준(CEFR) 및 EF 강좌 수준과 일치합니다. '우수' 등급은 CEFR의 B2 레벨에 해당합니다. '양호', '보통', '미흡' 등급은 CEFR B1 레벨에 해당하며, EF 강좌 레벨과도 동일합니다. '부족' 등급은 CEFR의 A2 레벨에 해당합니다. 각 등급에 속하는 영어 사용자의 능력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65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료 출처

EF EPI는 유로모니터나 갤럽 같은 여론 조사 기관이나 OECD의 성적 조사인 PISA나 PIAAC 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작성됩니다. 위와 같은 연구에서는 조사 표본을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수입 및 기타 요인을 고려하여 선택합니다. 그와 같은 표본은 보통 국가당 몇천 명 정도로 작지만 복잡한 표본 선택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전체 인구를 대표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른 영어 능력 자료는 국내 교육 체계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국가는 표준화된 국내 평가를 통해 모든 고등학생의 영어 능력을 평가합니다. 시험 결과는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교육자와 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이용해 교육 체계 개편 결과를 확인하고 어디를 개선해야 할지 결정하는 데 사용하곤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국내 평가는 각국 간에 호환이 불가능하며 성인을 평가한 것이 아니므로 한 국가 내의 고등학생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만 국가 간 학생의 능력을 비교하거나 성인 능력을 평가하는 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EF EPI는 국내 평가 결과 및 언어 관련 투표 자료 혹은 기타 자료와 경쟁하거나 반박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각 자료는 서로를 보완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몇몇 자료는 세밀하지만 특정 연령대, 국가, 응시자에 제한된 내용일 수 있습니다. EF EPI는 표준화된 평가 방법을 통해 전 세계 생산 가능 연령 성인들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폭 넓은 자료입니다. EF EPI와 견줄만한 크기와 범위를 가진 자료는 없으며, 자료에 한계가 있긴 하지만 영어 교육 논의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관련 EF EPI 보고서

EF EPI 보고서는 총 3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성인 영어 능력을 다루는 본 EF EPI 보고서, 직장인의 영어 능력을 평가한 기업용 보고서(EF EPI-c) 전 세계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영어 능력을 다루는 학생용 보고서(EF EPI-s)입니다. 올해는 EF EPI 제5판과 EF EPI-s 제1판이 발행되었습니다. EF EPI-c 제2판은 2014년에 발행되었습니다. 모든 보고서는 www.ef.com/epi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EF EDUCATION FIRST에 대하여

EF Education First(www.ef.co.kr)는 언어, 학문 및 문화 교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입니다. 1965년에 설립된 EF의 미션은 "교육을 통해 세계를 연다"입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에서 500개에 이르는 학교와 지사를 운영하고 있는 EF는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하계 올림픽의 공식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EF 영어 능력 지수(www.ef.co.kr/epi)는 EF Education First의 리서치 이노베이션 담당 부서인 EF Learning Labs가 발표합니다.

전년 대비 영어 능력 변화:

아래의 EF EPI 점수 변화는 각 국가별 EF EPI 제4판과 제5판 사이의 점수 변화입니다. 전년 대비 2점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해당 국가의 영어 능력이 큰 변화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EF EPI 제4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3년에 수집한 자료이며, 제5판에 사용된 자료는 2014년에 수집한 자료입니다.

국가	EF EPI 제4판	EF EPI 제5판	점수 변화
과테말라	45.77	49.67	3.9
네덜란드	68.99	70.58	1.59
노르웨이	64.33	67.83	3.5
대한민국	53.62	54.52	0.9
덴마크	69.3	70.05	0.75
도미니카 공화국	53.66	56.71	3.05
독일	60.89	61.83	0.94
라트비아	59.43	57.16	-2.27
러시아	50.44	51.59	1.15
루마니아	58.63	59.69	1.06
룩셈부르크	—	63.45	신규
리비아	38.19	37.86	-0.34
리투아니아	—	55.08	신규
말레이시아	59.73	60.3	0.57
멕시코	49.83	51.34	1.51
모로코	42.43	47.4	4.97
몽골	—	43.64	신규
베네수엘라	46.12	46.14	0.02
베트남	51.57	53.81	2.24
벨기에	61.21	59.13	-2.08
브라질	49.96	51.05	1.09
사우디아라비아	39.48	39.93	0.45
스리랑카	46.37	47.89	1.52
스웨덴	67.8	70.94	3.14
스위스	58.29	58.43	0.14
스페인	57.18	56.8	-0.38
슬로바키아	55.96	56.34	0.38
슬로베니아	60.6	64.97	4.37
싱가포르	59.58	61.08	1.5
아랍 에미리트	51.8	50.87	-0.93
아르헨티나	59.02	60.26	1.24
아제르바이잔	—	46.12	신규
알제리	38.51	40.34	1.83
에스토니아	61.39	63.73	2.34
에콰도르	51.05	51.67	0.62

국가	EF EPI 제4판	EF EPI 제5판	점수 변화
엘살바도르	43.46	45.52	2.06
예멘	—	47.6	신규
오만	—	46.34	DD
오스트리아	63.21	61.97	-1.24
요르단	47.82	47.33	-0.49
우루과이	49.61	50.25	0.64
우크라이나	48.5	52.61	4.11
이라크	38.02	40.69	2.67
이란	41.83	46.59	4.76
이집트	42.13	46.73	4.6
이탈리아	52.8	54.02	1.22
인도	53.54	58.21	4.67
인도네시아	52.74	52.91	0.17
일본	52.88	53.57	0.69
중국	50.15	49.41	-0.74
체코 공화국	57.42	59.01	1.59
칠레	48.75	51.88	3.13
카자흐스탄	42.97	47.04	4.07
카타르	47.81	43.72	-4.1
캄보디아	38.25	39.15	0.9
코스타리카	48.53	50.53	2
콜롬비아	48.54	46.54	-2.01
쿠웨이트	41.8	42.65	0.85
타이완	52.56	53.18	0.62
태국	47.79	45.35	-2.45
터키	47.8	47.62	-0.18
파나마	43.7	48.77	5.07
파키스탄	—	49.96	DD
페루	51.46	52.46	1
포르투갈	56.83	60.61	3.78
폴란드	64.26	62.95	-1.31
프랑스	52.69	51.84	-0.86
핀란드	64.4	65.32	0.92
헝가리	58.55	57.9	-0.66
홍콩	52.5	52.7	0.2

고급 영어 사용자	C2	읽고 듣는 모든 내용을 쉽게 이해한다. 다양한 곳에서 읽고 들은 정보를 요약하거나 논리적으로 재구성하고, 일관성 있는 설명을 할 수 있다. 미리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표현할 수 있으며, 복잡하고 미묘한 의미의 차이도 구별하여 정확하게 소통할 수 있다.
	C1	길고 어려운 문장을 이해할 수 있고 함축적인 표현도 이해할 수 있다. 표현에 있어 큰 어려움 없이 즉흥적으로 자연스럽게 자기 의견을 나타낼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사회적, 문학적, 전문적인 언어를 구사할 수 있다. 복잡한 주제에도 적절한 언어 패턴, 접속어, 연결어 등을 사용하여 명확하고 상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중급 영어 사용자	B2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논의를 포함하여,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주제에 관련한 복잡한 지문의 핵심을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다. 꽤 유창하고 자연스럽게 막힘 없이 원어민과 대화를 할 수 있다. 다양한 주제에 관해 명확하고 자세한 문장을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주제에 관한 견해도 다양한 장단점을 열거하며 설명할 수 있다.
	B1	직장, 학교, 여가 생활 등에서 자주 접하는 익숙한 주제의 핵심을 이해한다. 여행 중일 때 일어나는 대부분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다. 익숙하거나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주제에 관련된 간단한 문장을 만들 수 있다. 경험, 사건, 꿈, 희망, 의견, 계획 등을 묘사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이나 계획에 대한 이유와 설명을 간단하게 덧붙일 수 있다.
초급 영어 사용자	A2	자신과 가장 밀접한 주제(아주 기본적인 개인 및 가족에 대한 정보, 쇼핑, 지역 지리, 직업 등)에 관한 문장과 자주 사용되는 표현을 이해한다. 잘 알고 있거나 자주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간단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 있다. 간단한 문장으로 개인 신상, 현재 상황, 사건, 급히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할 수 있다.
	A1	구체적인 필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문구와 매일 사용되는 일상적인 표현을 이해한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소개할 수 있고 사는 장소, 아는 사람, 소지품 등에 대해 질문하고 답할 수 있다. 상대방이 이해를 돕기 위해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준다면 간단한 소통을 할 수 있다.

유럽평의회 인용문

EF EPI에 포함된 국가는 모두 A2에서 B2 등급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최하 등급인 A1과 최고 등급인 C1, C2에 해당할만한 평균 점수를 가진 국가는 없었습니다.

Bolio, Eduardo et al. "A tale of two Mexicos: Growth and prosperity in a two-speed economy." Março de 2014. McKinsey and Company. http://www.mckinsey.com/insights/americas/a_tale_of_two_mexicos

Central Intelligence Agency. "The World Factbook." 2014. <https://www.cia.gov/library/publications/resources/the-world-factbook/>

Chang, Bok-Myung. "The Role of English Language Education in Asian Context." 15 de Junho 2011. Pan-Pacific Association of Applied Linguistics 15(1): 191-206.

Council of Europe. Common European Framework of Reference for Languages: Learning, Teaching, Assess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

Council of Europe. Education and Languages, Language Education. Language Education Policy Profiles. http://www.coe.int/t/dg4/linguistic/Profiles1_EN.asp#TopOfPage

Dugdale, Emily. "60% of Colombian teachers don't speak English: Education Minister." 11 de Julho 2014. Colombia Reports. <http://colombiareports.co/60-colombian-teachers-dont-speak-english-according-education-minister/>

Education, Audiovisual and Culture Executive Agency. "Key Data on Teaching Languages at School in Europe." European Commission. Setembro de 2012. http://eacea.ec.europa.eu/education/eurydice/documents/key_data_series/143EN.pdf

Eshtehardi, Reza. "Pro-ELT; A Teacher Training Blended Approach." Outubro de 2014. The British Counci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anama. "Government and Ministry of Education launches Panama Bilingual Program." 3 de Julho 2014. <https://www.presidencia.gob.pa/19-Government-and-Ministry-of-Education-launches-Panama-Bilingual-Program>

Jung, Min-Ho. "CSAT English test will become easier." 27 de Agosto 2014. The Korea Times. http://www.koreatimes.co.kr/www/news/nation/2014/08/116_163711.html

Meng, Jing. "Online education boom brings wealth to English teachers." 26 de Janeiro 2015. China Daily. http://www.chinadaily.com.cn/business/2015-01/26/content_19403420_2.htm

Ministry of Education, Chile. "Programa ingles Abre Puertas." 2014. <http://www.ingles.mineduc.cl/>

Ministry of Education, Malaysia. "Preliminary Report Malaysia Education Blueprint 2013- 2025." Setembro de 2012. <http://www.moe.gov.my/userfiles/file/PPP/Preliminary-Blueprint-Eng.pdf>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ISA 2012 Results in Focus." 2012. <http://www.oecd.org/pisa/keyfindings/pisa-2012-results-overview.pdf>

Nas Özen, Efsan et al. "Turkey National Needs Assessment of State School English Language Teaching." Novembro de 2013. The Economic Policy Research Foundation of Turkey. http://www.tepav.org.tr/upload/files/haber/1395230935-0-Turkey_National_Needs_Assessment_of_State_School_English_Language_Teaching.pdf

Schiffbauer, Marc Tobias et al. "Jobs or Privileges: Unleashing the Employment Potential of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The World Bank. 2015. <http://www.worldbank.org/en/region/mena/publication/jobs-or-privileges-unleashing-the-employment-potential-of-the-middle-east-and-north-africa>

Simões, Ana Raquel et al. "The Project English Plus: a CLIL approach in a Portuguese school." Dezembro de 2013. Indagatio Didactica 5(4). <http://revistas.ua.pt/index.php/ID/article/view/2565/2430>

Steer, Liesbet et al. "Arab Youth: Missing Educational Foundations for a Productive Life?" Fevereiro de 2014. Center for Universal Education at Brookings. http://www.brookings.edu/~media/research/files/interactives/2014/arab%20world%20learning%20barometer/arabworld_learningbarometer_en.pdf

Takahama, Yukihiro. "Ministry telling schools to use private-sector English tests." 18 de Março 2015

이전 EF EPI판은 WWW.EF.CO.KR/EPI 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1판(2011)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2판(2012)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3판(2013)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제4판(2014)



EF EPI

EF English Proficiency Index

CONTACT US
www.ef.co.kr/epi

Copyright © 2015 EF Education First Ltd. All Rights Reserved